

공감

2022. 05.16~22

654 호

gonggam.korea.kr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_12 청와대 국민 품으로... 개방 현장을 가다_32 국민과 더 가까이 출근하는 대통령_38
추경 59.4조 원...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에 ‘600만 원+α’_48 코리아둘레길을 찾아서 ⑩ 5월 싱그러움 가득한 맛난 해변길_54

개인방역 6대 중요수칙

2022. 05. 02

지·켜·줘·아·겠·어

실내에선 마스크를
써줘야겠어

2



KF94 / KF80

1

예방접종은 끝까지
맞아줘야겠어



3

30초 이상 비누로 손은
꼭 씻어줘야겠어



사적 모임의 규모는 최소화,
시간은 가능한 짧게
모여줘야겠어

5



하루에 10분이상
3번은 환기를
시켜줘야겠어

4



6

코로나 증상 시 진료받고,
다른사람과 접촉을 최소화
해줘야겠어



완벽한 요가원을 찾지 않는다



● 김은경 출판 기획 에디터 겸 작가

12년 차 에디터. <에세이를 써보고 싶으세요?>를 썼다.
2022년에는 '성장'과 '실행'이라는 키워드에
집중해볼 예정이다.

무언가를 시도하려다가 멈칫하거나 뭔가를 완벽하게 만들려다가 지쳐 나가떨어지려는 순간이 있다. 그럴 때 나는 이 말을 중얼거린다.

“완벽한 요가원을 찾지 않는다.”

몇 년 전 겨울이었다. 혼자 일하다 보니 누구도 나를 책임져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날마다 마음이 요동쳤고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려면 좋은 마음이 장착돼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마음 수련차 요가를 배우겠다고 결심했으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당시 나는 모든 기준을 뚝뚝하게 세우는 편이었고 그때도 세상 뚝뚝한 눈으로 동네를 둘러봤다. 내가 원하는 조건은 이러했다.

- ① 집에서 가까운 것
- ②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수업이 있을 것
- ③ 싸면 좋다
- ④ 시설이 깨끗했으면
- ⑤ 정신 수련을 가르칠 것

집 근처에 요가원이 다섯 군데가 넘게 있었지만 비싸거나 시간이 안 맞거나 멀거나 다이어트에만 집중하는 것 같았다. 당시 나는 우산을 하나 고르는 데만 한 달이 넘게 걸렸던 터라 이대로라면 당장은 고사하고 내년에도 요가를 배우지 못할 게 분명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키워드를 다르게 적어 계속 검색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나는 아까 보고 달아

버린 글들을 읽고 또 읽었다.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다 별론데”라고 중얼거렸다. 그 순간 새로운 생각이 고개를 들었다.

‘모든 곳이 별로라면 이 중 어디에 가도 상관없지 않나?’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그 일을 하려는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나의 목표는 요가를 배우는 것이지 최고의 요가원을 찾는 것이 아니었다. 지금 선택한 이곳을 평생 다닐 리도 없는데 왜 평생 치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를 미리 따지지? 일단 요가를 시작하고 더 좋은 요가원을 찾으면 그때 옮겨도 되잖아? 무언가를 실행하려면 첫 단계를 쉽게 설정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포털에 검색해 가장 위에 나오는 요가원에 가보기로.

검색 후 가장 위에 뜬 요가원은 집에서 좀 멀고 시설은 좀 허름하지만 동네에서 제법 오래된 곳이었다. 나는 그곳에 전화를 걸어 마음을 수련하는 수업이 있는지, 그 수업을 한 시간 정도 체험해볼 수 있는지 물었고 보통 새벽 수련이 그런 분위기이며 내일 오전 6시에 오면 된다는 답을 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첫 운행을 준비 중인 버스들을 지나쳐 요가원에 도착해 보니 놀랍게도 수련생은 나 혼자였다. 부원장도 이런 일은 드물다고 했다. 나는 그 날 부원장에게 일대일 교습을 받고 한 달분을 등록했으며 여차저차 하다가 지도자 과정까지 수료했다.

단 한 번의 무모한 시도였는데 그것이 가져온 결과는 이후 내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꿨다. 무언가를 시도하려다가 멈칫하거나 뭔가를 완벽하게 만들려다가 지쳐 나가떨어지려는 순간 나는 “완벽한 요가원을 찾지 않는다”를 중얼거린다. 그런 다음 눈을 질끈 감고 아무렇게나 스타트를 끊는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전 단계에서는 풀리지 않던 문제가 간단히 해결된다.

올 초에는 문득 주짓수(브라질 유술)를 배워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번에도 “완벽한 요가원을 찾지 않는다”를 중얼거리며 집 근처 주짓수 학원을 이미 찾아두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니 갑자기 만사가 귀찮다. 과연 나는 올해 주짓수를 배울 것인가!◎





IN SE OUL TIME

청와대 관람

다누림 셔틀버스 운행

이용 대상: 장애인, 만 65세 이상, 임산부, 만 8세 이하 및 동반자

운영기간
2022. 5. 10.(화) ~ 5. 22(

운영시간
경복궁역 09:00 ~ 17:00

“무료 버스 타고 청와대 가요”

청와대 관람객들이 5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4번출구 앞에서 셔틀버스를 탑승하고 있다. 서울관광재단은 오는 5월 22일까지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만 8세 이하 아동과 동반자 등을 위한 청와대 관람 무장애 셔틀버스를 무료로 운행한다. | 연합뉴스

공감

포인팅용체

2022. 05.16-22

654호



06



표 지 이 야 기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대한민국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 취임했다. 취임식의 슬로건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0시를 기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의 법적인 권한과 역할인 통치권을 공식적으로 넘겨받았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취임식을 마친 후 이동하며 연도를 메운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김은경의 전략 수정

- 01 완벽한 요가원을 찾지 않는다

공감 포토

- 02 "무료 버스 타고 청와대 가요"

연재_ 공감 경제 ㉔

- 46 무엇이 국민을 이롭게 하는가?

코로나19

- 48 추경 59.4조 원... 소상공인 등 370만 명에 600만 원+α
50 "새 정부 100일 내 코로나19 대응체계 재정립"

홍화정 만화_ 슬기의 여유를 찾아서 ①

- 52 여유가 뭐였더라?

연재_ 코리아돌레길을 찾아서 ㉔

부산 미포~대변항 '해파랑길 2코스'

- 54 5월 싱그러움 가득한 맛난 해변길

제 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

- 06 /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 12 /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 17 / ‘자유, 인권, 공정, 연대’ 강조
- 20 / 국민이 제안한 의견 20개 실제 정책으로
- 24 / “학급 인원 줄이면 교사·학생 상생할 수 있을 것”
- 25 / “자영업자 위한 공약 잘 지켜졌으면 좋겠어요”
- 26 / “자기주도학습 능력 키우기 위한 대안 고민해야”
- 27 / “일시적 지원금 아닌 중·장기적 지원책 나와야”
- 28 / “한미동맹 강화, 한·중 동반자 관계 발전 기대”
- 32 / “웅장한 청와대 위용과 빼어난 경관에 놀라
역사적 개방 순간 함께해 감격”
- 38 / 국민과 더 가까이 출근하는 대통령
- 42 / 집무실 앞뜰에 ‘한국판 센트럴파크’
- 44 / 고용 통해 성장과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복지

연재_K-컬처 18

- 58 정한 세월 살아낸 한국인 감동의 K-스토리

연재_공감 우리말 65

- 60 스승의 은혜

연재_한국인이 사랑하는 한국 작가 46

화가 이주연

- 62 직선으로 그린 마음의 풍경

- 64 참여공감

12



54



발행일 2022. 05. 16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 국민소통실 콘텐츠기획과
(044) 203-3014
제작협력 한겨레미디어
인쇄 삼화인쇄
구독 문의 및 주소 변경(수신자 부담)
080-851-0183

-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하는 <공감> 저작물은 '공공누리(www.kogil.or.kr)'의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 허락 표시제도입니다.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사진으로 보는 취임식

대한민국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 취임했다. 취임식의 슬로건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0시를 기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의 법적인 권한과 역할인 통치권을 공식적으로 넘겨받았다.

같은 시각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는 임기 개시를 알리는 타종 행사가 열렸다. 33번의 타종으로 도성 8문을 열었던 파루의 전통에 따라 새 대통령의 출발을 알리는 타종 행사는 조수빈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20대 임기를 상징하는 20명의 국민대표가 참석했다. 타종을 하는 동안 서예가 울산 리홍재 선생의 대북을 활용한 타목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취임식 후 윤 대통령은 곧바로 용산 국방부 청사에 설치된 새 대통령 집무실로 이동해 본격적인 집무를 시작했다.

오후에는 국내 주요 인사 및 외빈을 위한 경축연회 및 만찬이 진행됐다. 경축연회는 이익선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렸으며 외빈 초청 만찬은 김연주 취임준비위원회 대변인의 진행으로 신라호텔에서 개최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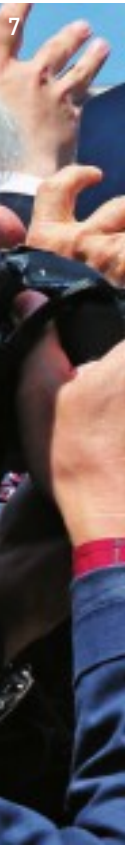
3



- 1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 2 윤 대통령이 1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외빈 초청 만찬에서 포스팅 아르상제 투아데레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과 건배하고 있다. |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3 윤 대통령이 취임식에 참석하며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 4 김건희 여사가 취임식이 끝난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웅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 5 취임식 축하공연에 참가한 어린이들 | 대한민국정부





- 6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서 열린 취임식을 마친 뒤 퇴장하며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 7 윤 대통령이 취임식을 마친 뒤 퇴장하며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 8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5월 1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 경축 연회에서 건배주를 마시고 있다.
- 9 윤 대통령이 취임식을 마친 후 이동하며 연도를 매운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 |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10 윤 대통령은 취임식을 마친 뒤 용산에 마련된 대통령 집무실에서 1호 법안에 서명하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의 모습 |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대통령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 시민 여러분,

저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

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역사적인 자리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
포스팅 아르샹주 투아데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인도네시아



저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 전 대통령, 더글러스 엠호프 해리스 미국 부통령 부군, 조지 푸리 캐나다 상원의장,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경축 사절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난 2년간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큰 고통을 감내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헌신해주신 의료진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시민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팬데믹 위기, 교역 질서의 변화와 공급망의 재편, 기후 변화, 식량과 에너지 위기,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후퇴 등 어느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또는 몇몇 나라만 참여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양한 위기가 복합적으로 인류 사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국내적으로 초저성장과 대규모 실업, 양극화의 심화와 다양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공동체의 결속력이 흔들리고 와해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반지성주의입니다.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진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입니다.

국가 간, 국가 내부의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처해있는 문제의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우리 국민은 많은 위기에 처했지만 그럴 때마다 국민 모두 힘을 합쳐 지혜롭게, 또 용기있게 극복해 왔습니다.

저는 이 순간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책임을 부여받게 된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위대한 국민과 함께 당당하게 헤쳐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또 세계 시민과 힘을 합쳐 국내외적인 위기와 난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시민 여러분,

저는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자유 시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방치된다면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자유마저 위협받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자유를 재발견해야 합니다.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 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 피었습니다.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입니다.

자유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자유 시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방치된다면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자유마저 위협받게 됩니다.

자유는 결코 승자독식이 아닙니다.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그리고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 없이 자유 시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자유가 유린되거나 자유 시민이 되는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모든 자유 시민은 연대해서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개별 국가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기아와 빈곤, 공권력과 군사력에 의한 불법 행위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고 자유 시민으로서의 존엄한 삶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모든 세계 시민이 자유 시민으로서 연대하여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규칙을 지켜야 하고, 연대와 박애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내 문제로 눈을 돌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도약과 빠른 성장을 이룩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사회 이동성을 제고함으로써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의 자유를 확대하며 우리의 존엄한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은 우리나라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취임식에서 국민대표들과 함께 단상에 오르고 있다. |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으로써 과학 기술의 진보와 혁신을 이뤄낸 많은 나라들과 협력하고 연대해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시민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평화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보장이 됩니다.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전 세계 어떤 곳도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금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한반도뿐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그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저는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그룹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국제 규범을 적극 지지하고 수호하는데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시민 모두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확대하는데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국제사회도 대한민국에 더욱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내 문제와 국제 문제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때 국내 문제도 올바른 해결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10일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5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식전행사로 축하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자유, 인권, 공정, 연대’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 취임식을 열고 5년 임기의 제 20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국내외 귀빈과 국회·정부 관계자, 각계 대표, 초청받은 일반 국민 등 4만 1000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다음 국회 앞마당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했다. 취임식의 표어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이다.

취임식 무대 뒷벽은 4월 24일 서울 용산가족공원에서 열린 어린이 그림 그리기 축제 ‘어린이가 꿈꾸는 대한민국’에 참가한 어린이 100명의 그림으로 꾸며졌다. 어린이 날 제정 100주년을 기념해 유명 작가가 아닌 어린이들이 직접 그린 작품을 모아 디자인했다. ‘어린이가 꿈꾸고 상상하는 미래가 곧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윤 대통령의 철학을 반영했다.

취임식은 식전 행사와 본 행사로 나뉘 열렸다. 식전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이재용·박보경 아나운서의 사회로 ▲맑은소리하모니카앙상블 ▲다니엘라와 어린이 연합 뮤지컬 공연단 ▲학생 연합 치어리딩 댄스팀 ▲청년 연합 수어 뮤지컬 ▲대학생 연합 무용단의 공연 등으로 구성돼 취임식 기조에 걸맞은 따뜻한 감동과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본 행사는 오전 11시경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입장으로 시작됐다. 지휘자 차인홍의 지휘로 서울시립교향악단, 하트하트오케스트라의 연주 및 이마에스트리와 연합 합창단의 합창을 바탕으로 대통령 내외가 입장하며 국민과 함께 나아갈겠다는 의미를 담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대한민국을 빛낸 ‘국민희망대표’ 20명과 함께 단상에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 서울 용산에 새로 마련된 대통령 집무실에서 1호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 기반”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유행 위기, 교역 질서 변화와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식량·에너지 위기, 분쟁의 평화적 해결

의 후퇴, 초저성장과 대규모 실업, 양극화 심화와 사회적 갈등 등 국내외 현안을 거론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나가겠다.”**

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가장 큰 원인으로서는 반지성주의를 지목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간, 국가 내부의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의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바로 ‘자유’라며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 문제를 도약과 빠른 성장을 이룩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자유, 제대로 정확하게 인식해야”

윤 대통령은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사회 이동성을 제고함으로써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다”며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는 것”이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한반도뿐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그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면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그룹에 들어가 있으며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국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5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가운데 취임식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제 규범을 적극 지지하고 수호하는 데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시민 모두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확대하는 데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무총리 인준안 ‘1호 결재’… 7개부처 장관 임명

취임식에는 143명의 주한 외교사절을 포함해 300여



명의 외빈이 참석했다. 전·현직 정상급 인사로는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 포스탱 아르상주 투아데라 중앙 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인도네시아 전 대통령,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전 총리 등이 참석했다.

미국에서는 더글러스 엠호프 해리스 부통령 부군을 비롯해 마틴 월시 노동부 장관, 아미 베라 하원의원, 메릴린 스트리클랜드 하원 의원, 토드 킴 법무부 차관보, 린다 심 대통령 인사담당 특별보좌관과 소설 <파친코>를 쓴 이민진 작가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캐나다 상원의장, 우즈베키스탄 상원 제1부의장, 카타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식 이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국회로 보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서명했다.

취임식 직후의 '1호 결재'였다.

르 전 중앙은행 총재,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행정청장, 케냐 에너지부장관, 나이지리아 재무부장관, 몽골 대통령실 비서실장, 영국 외교부 국무상, 사우디아라비아 국 부펀드 총재 겸 아람코 회장 등도 각국을 대표하는 경축 사절로 참석했다.

제20대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는 “이번 취임식은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혼자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처럼 어린이의 무한한 상상의 꿈, 공정한 기회를 바탕으로 실현되는 청년의 꿈, 차별 없는 동행으로 이루어진 약자의 꿈, 국민과 사회에 헌신한 영웅들의 명예를 되찾는 꿈을 출연진·프로그램·무대 디자인 등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취임식 후 윤 대통령은 곧바로 용산 국방부 청사에 설치된 새 대통령 집무실로 이동해 본격적인 집무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국회로 보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서명했다. 취임식 직후의 ‘1호 결재’였다.

윤 대통령은 이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 7명을 공식 임명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결과보고서가 채택된 인사들이다. ●

이찬영 기자

국민이 제안한 의견 20개 실제 정책으로

국민제안센터 통해 본 국민 목소리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국민제안센터'를 출범하고 인수위 누리집 '국민이 당선인에게 바란다' 메뉴를 통해 정책 제안을 받았다. 인수위는 이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모아 우수 제안 20건을 선정하고 4월 27일까지 국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 제안된 의견은 추천 수에 따라 우선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에 <공감>은 20개 우수 제안과 그 밖의 의견을 통해 새 정부를 향한 국민의 바람을 들여다본다. ㉠

조윤 기자

1 잔혹한 동물 학대, 처벌법 강화해주세요(추천 수 13881)

동물 학대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동물 학대를 모의하는 누리소통망(SNS) 대화방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동물들이 학대받지 않도록 강력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2 주식시장 공매도 요건을 개선해주세요(100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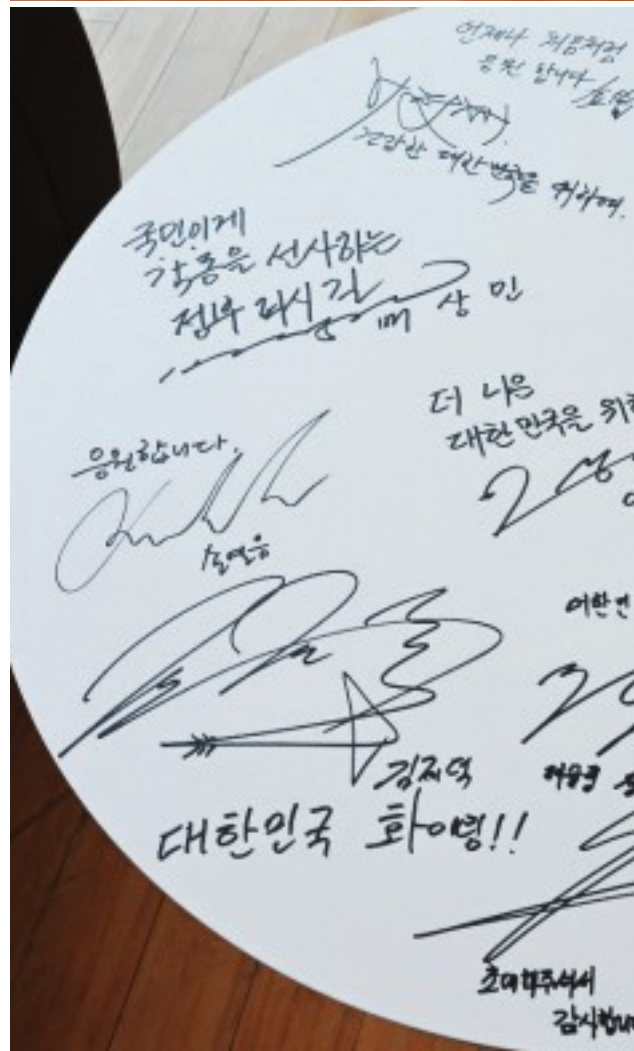
외국인·기관 투자자와 개인투자자의 담보 비율 및 상환기간 요건을 조정하고 일정 수준 주가가 하락할 경우 공매도 '주식 매매 일시 정지'를 도입해 개인투자자를 보호해주세요.

3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 꼭 이행해주세요(4862)

국가를 위한 젊은 군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에 걸맞은 보상과 대우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병사들에게 희망과 도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월급 200만 원 반드시 이행해주세요.

4 외국인 부동산 취득을 규제해주세요(1350)

2030세대의 부동산 취득이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 투자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상호 규정에 맞게 부동산 매매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11 5G 중간 요금제 사용하고 싶어요(402)

대부분의 5세대(5G) 요금제는 100GB에 8만~9만원대 요금제로 형성돼 있습니다.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데이터 평균 사용량에 맞는 중간 요금제를 활성화해 주세요.

12 육아기 재택근무 확대 빨리 시행해주세요(362)

어린이 등·하원 도우미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육아휴직과 단축근무는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육아기 재택근무를 조속히 확대 시행해주세요.

13 초등학생 자녀 돌봄 공백을 해소해주세요(330)

초등학생 하교 시간과 부모의 퇴근 시간 차이로 자녀 돌봄에 공백이 있습니다. 방과 후 수업을 활성화해 맞벌이 부부도 마음 편히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14 유치원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해주세요(298)

교사 1인당 아동 수가 많아 교육 효과가 떨어지고 안전 사고가 우려되는 일이 많습니다. 놀이 중심 교육과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유치원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해주세요.

15 문화재를 복원해 지역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281)

문화재를 원형대로 복원하는 것과 더불어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 등 디지털 기술을 통해 국민들이 우리 문화유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16 전동 킥보드 사용자 안전 규정 강화해주세요(251)

최근 과속·헬멧 미착용·음주 운전을 비롯한 불법행위가 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등록제 및 책임보험 의무가입 등의 조치로 제도권 내 관리·감독이 절실합니다.

17 교통신호 변경 잔여 시간이 표시되는 신호등을 설치해주세요(250)

신호가 바뀔 때 차량 속도를 유지해야 할지 감속하며 멈춰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정지선 위반 및 꼬리물기 등을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18 보육원 보호종료 아동의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해주세요(233)

만 18세가 되면 보육원을 퇴소해야 하는 이들이 사회에서 돈을 벌어 보육원비를 내고 2년을 더 머물게 해주시고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해주세요.

19 수능 원서 접수 어디서든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204)

출신 고등학교나 거주지 교육청에서 수능 원서 접수를 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위장전입이 성행합니다. 사전투표 제도처럼 수능 원서 접수도 어디서든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20 공교육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교육을 확대해주세요(124)

코딩 교육은 논리력과 사고력을 키워줍니다. 더불어 국가 IT 산업 경쟁력을 위해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까지 프로그래밍 교육을 꼭 확대해주세요.



그 밖의 정책 제안 의견

가짜 뉴스로 말미암은 사회적 혼란과 여론 왜곡이 심각합니다.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자와 이를 알면서도 방치한 사이트 운영자는 엄벌에 처해주세요.

코로나19로 학교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이 심해졌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습니다. 교육당국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2021년 매출이 없어 보상을 못 받습니다. 코로나19로 똑같이 피해를 봤는데 누구는 보상을 받고 누구는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제발 소상공인을 두 번 울리지 마세요.

‘똥똥한 한 채’ 선호 현상으로 강남·강북 간 집값 차이가 너무 큼니다. 최대 4배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모든 제도를 손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소통을 강조하는 정부인 만큼 누구나 대통령과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유지해주세요.

100세 시대 국민 건강을 생각하는 공약이 없습니다. 가정용 환기시스템 설치가 의무화됐어도 국민 다수가 모르고 공공기관의 공기질 측정도 형식적입니다. 미세먼지 해결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중증도에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이 일자리에 대해 차별 없이 공평하게 경쟁해서 합격하면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교통 요금과 도시가스, 전기료도 모든 장애인이 동일하게 할인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영·호남 반목이 이번 선거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치유하고 화합하는 정책들을 만들어주세요.

블라인드 채용 시 출신 학교뿐만 아니라 학점도 반영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경쟁 수준이 높은 학교 학생들에게는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습 음주 운전 전과자나 대인 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가 다시 운전하게 될 때는 특수 번호판을 일정 기간 장착하게 해주세요.





춘천교육대학교 4학년 김다연 씨

“학급 인원 줄이면 교사·학생 상생할 수 있을 것”

춘천교육대학교 4학년 김다연 씨

춘천교육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김다연(23) 씨는 대학 생활 마지막 1년을 임용시험 준비로 보낼 계획이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오랜 꿈인 그, 이제 곧 교사로 사회의 일원이 될 생각을 하니 설레기도 하고 잘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된다.

“교대를 졸업하고 임용시험에 합격해도 교단에 서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최근 출산율이 낮아 학생 수가 적어지다 보니 선발 교사 인원도 줄고 있거든요.”

실제로 2022년 2월 서울 지역 초등교사임용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216명인데 합격자 전원이 ‘미발령’ 상태로 알려졌다. 이렇게 미발령 사태가 발생하는 이유는 초등학교 입학 학생이 줄어들면서 필요한 교사의 수가 줄어드는 데 반해 전국 교육대학교의 입학 정원은 똑같이 때문이다. 한마디로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예비 교사들은 임용시험에 합격한 후에도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

를 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이에 김 씨는 새 정부가 교사들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을 내비쳤다.

“학생 수와 교사 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 ‘학급당 인원 수’ 개선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어요. 서울은 한 반 학생 수가 30명이 넘는 학교가 많은데 교사당 학생 수가 많으면 교사가 학생들을 세심히 보살피기 힘들거든요. 하지만 학급 인원을 20명으로 줄이면 교사와 학생이 상생하면서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국가장학금 변별력 고민해주기를

김 씨는 국립대는 비교적 덜하지만 사립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은 비싼 등록금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깝다는 말도 전했다.

“사립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이 비싼 등록금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아르바이트도 많이 해요. 물론 정부에서 국가장학금을 운영하고 있지만 학생 입장에서 장학금 지급 기준에 변별력이 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집에 돈이 많은 학생이 명의를 옮겨 장학금 혜택을 보는 경우도 있고, 장학금을 받는 학생보다 형편이 어려운데 자격이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사각지대가 있는 거죠. 정부에서 국가장학금의

변별력에 대한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울러 김 씨는 경제 선진국에 들어선 우리나라가 ‘복지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장애인과 장애 어린이가 사회와 학교에서 함께 어울리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다연 씨는 경제 선진국에

들어선 우리나라가 ‘복지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장애인과 장애 어린이가 사회와

학교에서 함께 어울리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리나라는 부익부 빈익빈은 물론 남녀 성별에 따른 차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 노인과 청년의 생각 차이, 강자와 약자에 대한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갈등을 좁히고 복지가 바탕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내는 게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글·사진 김민주 기자

“자영업자 위한 공약 잘 지켜졌으면 좋겠어요”

한복집 운영하는 고민석 씨

고민석(54) 씨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상가에서 ‘해밀아이’ 한복집을 15년째 운영하는 자영업자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상가는 지방 사람들과 외국인들은 물론이고 저렴하고 좋은 물건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던 곳이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시끌벅적하던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상가는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고 가게 주인들은 텅 빈 가게를 홀로 지키며 코로나19 대응행을 견뎌야 했다. 매출은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임대료와 각종 관리비는 매달 비슷하게 내야 하니 ‘더 이상 못 하겠다’며 여기저기 폐업하는 곳도 많았다. 고민석 씨도 지난 2년을 버티는 게 정말 쉽지 않았다.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매출이 3분의 1이 줄어들더니 그 뒤로 계속 반토막 났죠. 영업시간 제한은 없었지만 거리두기와 집합금지 등으로 한복을 입어야 하는 ‘명절 모임’, ‘학교와 유치원 명절 행사’, ‘돌잔치와 백일잔치’ 등이 취소되니까 손님들이 아예 없었어요. 매일 가게가 텅텅 비어 있었죠.”

처음에는 코로나19가 곧 끝나겠지 생각했는데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고 씨는 결국 자영업자를 위한 각종 대출을 받아 써야 했다.

“오랫동안 운영하던 가게들이 속수무책으로 문을 닫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가게의 지출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직원을 내보내고 거래처에 맡기던 일까지 모두 직접 처리했죠.”

코로나19 위기 속에 새로운 희망도 발견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과 방역지원금 등을 통해 자영업

자를 지원해주긴 했지만 구멍 난 매출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이에 대해 고 씨는 “새로운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내걸었던 공약을 책임지고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고 씨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받으면서 고된 시간을 보냈지만 그런 와중에 미래에 대한 새로운 희망도 찾을 수 있었다. 그동안 바쁜 업무로 미루고 미뤘던 양장

재단을 배우러 다닐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한복과 양장을 융합시킨 새로운 콘셉트의 한복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한 것이다.

“코로나19로 손님이 없어 불안하고 힘들었지만 여유 시간에 새로운 일을 준비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요즘 해외에서 인기가 많은 우리 한복을 고유의 미를 살리면서 사람들이 편하고 세련된 일상복으로 입을 수 있도록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고 씨는 자영업자 입장에서 새로운 정부에 당부하고 싶은 말을 전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잠잠해지면 자영업자 지원에 대해 일반 사람들의 불만이 높아질 수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자영업자 개인의 역량 문제로 국한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한 정책을 급격하게 바꾸기보다 기존의 정책에 새로운 정책을 점차적으로 늘리면 서로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글·사진 김민주 기자



한복집을 운영하는 고민석 씨

**고민석 씨는 “새로운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내걸었던
공약을 책임지고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초등학생 딸을 둔 학부모 박은주 씨

“자기주도학습 능력 키우기 위한 대안 고민해야”

초등학생 딸을 둔 학부모 박은주 씨

서울시 상계동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 딸을 키우는 박은주(48) 씨는 학부모이자 초중등 영어 강사다. 학교 근처 학원에서 20년째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 교육에 관심이 많은 그는 최근 아이들의 학습 문제에 고민이 많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아이들의 학습 상태가 ‘최상’과 ‘최하’로 나뉘었어요. 자기주도학습이 잘되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학교를 안 갔어도 열심히 했는데 자기주도학습이 안 되는 아이는 그야말로 ‘방치’ 상태나 다름없었거든요. 아이들에게 학습 공백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학교와 정부에서 아이들의 학습 부진에 대해 빨리 대책을 마련해줬으면 좋겠어요.”

박 씨는 코로나19 상황을 2년간 겪으면서 학부모, 학생, 교사 3박자가 서로 얼마나 잘 맞아야 하는지 절실히 깨달았다. 학교에서 원활한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 학부모가 아이의 학업에 깊이 관여해 공부를 지도하거나 아이가 스

스로 알아서 공부해야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는 거의 없었고 집에서 뒹굴뒹굴하는 아이를 공부하도록 지도할 수 있는 학부모도 없었기 때문이다.

“맞벌이 부부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아이를 학교 돌봄교실에 보냈는데 학교에서도 ‘데리고 있는 정도’ 수준이었고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지는 않았어요. 그 벌어진 격차를 지금 좁히려고 해도 잘 안 돼요. 학교에서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집중 관리를 해줘야 해요.”

길게 바라보고 교육정책 펼쳐주기를

박 씨는 학부모들이 무턱대고 학원을 ‘답’으로 여기는 태도 역시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이들이 학원에 가면 ‘공부를 잘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책가방을 메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과 돈을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 이렇게 사교육에 돈을 쓰면서 학원에 의존하는 방법 대신, 아이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대안을 고민해야 할 때다.

“정부와 학교에서 체계적인 자기주도학습 시스템과 돌봄 시스템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해요.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아이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부가 그런 쪽에 투자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또한 박 씨는 대학입시에 대한 정부 정책에 일관성이 없

다는 것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실제로 중학교 1학년과 3학년 형제를 둔 한 학부모는 두 아이의 대학입시 전형이 달라 너무 혼란스러워한단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달라지기 때문에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이
무척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아이들과 나라의 미래를 길게
바라보고 교육정책을 펼쳐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달라지기 때문에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이 무척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때마다 달라진 교육과 입시 정책

을 공부해야 하고 그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하니까요. 아이들과 나라의 미래를 길게 바라보고 교육정책을 펼쳐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

글·사진 김민주 기자

“일시적 지원금 아닌 중·장기적 지원책 나와야”

유병조 서울 노원구소기업소상공인회 이사장

유병조 서울 노원구소기업소상공인회 이사장은 경기 하
남시에서 CJ제일제당 식품 도매 대리점 가락씨제이(주)를
25년째 운영하고 있다. 수십 년 사업을 하면서 온갖 우여
곡절을 겪었지만 코로나19 상황 2년은 유 이사장에게 정
말 힘든 시간이었다.

“저희 업체는 주로 학교에 급식 식자재를 납품하는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아이들이 학교에 못 가면서 급식 제
공을 안 하니 70억 원 정도이던 연 매출이 지난 2년 동안
20% 이상 떨어져 타격이 컸죠. 부도나거나 도산한 식자재
납품업체도 많아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줄었는데 인건비와 관리비, 임
대료 등은 똑같이 지출됐기 때문에 사업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가락씨제이(주)는 연 매출액이
높다 보니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지원금,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등을 받기 힘든 상황이었고 결국 사업 자금을 충당
하기 위해서는 개인신용대출을 총동원해야 했다.

유 이사장은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었다. 주위에 있
던 소상공인들이 임대료를 내지 못해 하루아침에 폐업하
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규제 때문에 결국 소상공인들
만 직접적인 피해를 봤어요. 지금 소상공인들에게 남은 건
'빚'과 '좌절감'뿐이에요. 특히 이른바 2차, 3차 업종인 호
프집과 유흥업소 업주들의 피해는 말도 못 해요. 집합금지
와 거리두기로 손님이 전혀 없어 임대료와 관리비를 몇 년
씩 못내며 극한 상황까지 몰렸죠. 대부분 폐업하고 고향으
로 내려가거나 본업은 접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
계를 유지했죠.”

소상공인 특별지원센터 마련을

유 이사장은 코로나19가 끝나도 소상공인의 매출이 회복
되려면 5~10년을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사람들의 생활 습
관과 인식이 변했기 때문이다. 이에 그는 일시적인 지원금
이 아니라 중·장기적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제시하는 손실보상금이나 정부지원금은 소상공
인들이 입은 피해액의 10분의 1도 안 돼요. 소상공인에
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제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어
요. 임대료·가맹점비 지원, 부가세 면제, 배달 수수료·카
드 수수료 지원 등에 대해 정부가 꼼꼼히 살펴보고 중·장
기적인 지원책을 내놓아야 해요.”

또한 유 이사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스마트 사업과 디지
털 사업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대부분이 컴퓨터나 디지털기기와 친숙하지 않아서 급변하



유병조 노원구소기업소상공인회 이사장

는 마케팅(시장
거래) 변화를
따라가기 힘들
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을
위해 누리소통
망(SNS) 홍보,
인터넷 콘텐츠
개발 등에 대
한 교육이나 서

비스를 대행해주는 ‘특별
지원센터’가 있었으면 좋
겠어요. 소상공인이 홍보,
세금, 대출, 재창업 등에
대해 상담할 창구가 없어
요. 정부지원금을 받을 자
격이 되는지, 지원금을 받
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 그런 부분을 무척 어
려워하거든요. 구청마다
소상공인 특별지원센터가

**유병조 이사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스마트 사업과 디지털 사업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대부분이
컴퓨터나 디지털기기와 친숙하지
않아서 급변하는 마케팅(시장
거래) 변화를 따라가기 힘들기
때문이다.**

마련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글·사진 김민주 기자



“한미동맹 강화, 한·중 동반자 관계 발전 기대”

각국 정부 및 외신 반응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세계 주요국 정상들은 윤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 메시지를 전하며 외교 관계의 협력과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바람을 드러냈다. 해외 주요 외신들 역시 취임식을 전후해 윤 대통령이 직면한 국내의 상황과 경제·외교 문제들을 분석하며 새 정부 출범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세계 주요 언론들은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심화 등 어려운 시기에 윤 대통령이 취임했다고 보도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관건이며 한미동맹 강화, 한일 관계개선 등의 변화도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 강화

세계 주요 언론들은 윤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들 보다 더 어려운 외교 정책과 국내 도전들에 직면해 있다면서도 한미동맹은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AP통신은 “윤석열정부는 미·중 경쟁과 무역 분쟁을 둘러싼 일본과 긴장 관계 등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윤 대통령이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 강화 등을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관건”이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 오후 서울 용산 집무실에서 왕치산 중국 국가 부주석을 접견하고 있다. |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방한이 윤 대통령 리더십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윤석열정부가 시급히 해결할 과제로 북한과 갈등이 꼽힌다.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미국과 더욱 밀접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5월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 새 정부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해외 주요 언론들은 윤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특히 주목했다. AFP통신은 "윤 대통령이 세계 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취임한 만큼 책무가 많다"며 "윤 대통령은 대북 문제에 있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다르게 북한에 강경한 태도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윤 대통령이 북한에 비핵화 움직임을 촉구했다"면서 "북한을 남한의 주적이라고 칭했던 그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한다면 북한을 위한 대담한 계획을 제안하고 대화의 문을 열어두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AP통신 역시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협

세계 주요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들 보다 더 어려운

외교 정책과 국내 도전들에

직면해 있다면서도 한미

동맹은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상을 촉구한다는 말과 함께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북한 경제를 개선하고 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대담한 계획을 제안했다"면서 "대선 기간에는 북한을 향해 강한 입장을 표명했지만 취임사에서는 강경한 말을 피했다"고 전했다.

CNN은 "한국의 새 대통령이 북한에 비핵화를 대가로 경제적 지원을 위한 대담한 계획을 약속했다"면서 "대화와 평화적 해결의 문은 열려 있고 비핵화를 대가로 북한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대북 정책 등 새 정부 행보에 촉각

일본 주요 언론들은 윤 대통령의 취임을 일제히 보도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외빈 초청 만찬에서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오른쪽부터),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더글라스 엠호프 미국 부통령 부군과 건배하고 있다. |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얼어붙은 한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NHK는 “5년 만에 보수정권이 출범한다. 검찰 출신으로 정치 경험이 부족한 윤 대통령이 리더십을 얼마나 발휘할지가 관건”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이력과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한미 동맹과 일본과 관계 개선에 적극적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의 2대 통신사 중 하나인 지지통신에 따르면 마쓰노 관방장관은 “윤 대통령의 취임을 환영하고 축하한다”고 전하며 “한국과 일본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래로 쌓아온 우호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새로운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해 나갈 것이다. 한일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 언론들은 윤석열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나타냈다. 마이니치 신문은 “윤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활성화, 대북 정책, 한일 관계개선 등 국내외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조건으로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의 문을 열어두었다. 북한을 자극하는 문구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사히신문 역시 “윤 대통령이 문재인정부의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를 요구해 나갈 생각”이라며 윤석열정부의 대북 정책에 관심을 보였다.

중국 “양국은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

중국 언론들은 윤석열정부의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 관계개선 가능성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였다. 신

세계 주요국 정상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 메시지를 전하며 외교 관계의 협력과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바람을 드러냈다.

중국의 이익을 해치면 한국에 손해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미국은 윤 대통령 당선 이후 한국을 중국 봉쇄 진영에 합류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국은 자신의 정치와 경제적 이익을 지키며 그에 맞는 외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중국은 한국과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성의를 보여왔지만 중대 이익과 관심사가 걸린 민감한 문제에서는 어떠한 변경이나 양보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매체는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는 양국은 경제와 정치적 상호 신뢰가 형성됐고 중국은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며 “새 정부가 순조롭고 긍정적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했다.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 대변인은 “중국과 한국은 영원한 이웃으로 서로 중요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며 “중국 측은 한국 신임 정부와 각계각층과 함께 동반자 관계를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함께 추진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

김민주 기자

미·일·중 정상들 축하 메시지와 경축사절단 보내

윤석열 대통령 취임에 세계 각국 정상들도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당선 이후 첫 공식 일정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로 시작했으며 미국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과 긴밀하게 협력하길 고대하고 있다”고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동아시아 순방의 첫 번째 일정으로 5월 21~22일 방한해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 발전 및 대북 정책 공조, 경제안보와 국제적 현안 등 폭넓은 사안에 깊이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취임식 직후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한미동맹은 공통의 이해와 가치 위에 지어진 관계”라며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의 핵심축이다. 세계적인 도전에 맞서는 데 한미 양국의 협력이 이어지길 기대하다”고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 취임식에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인 더글라스 엠호프 단장과 마티 월시 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으며 엠호프 단장은 “5년간 긴밀하게 협력하고 싶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중국은 윤 대통령 취임식에 시진핑 국가주석의 최측근 인사인 왕치산 부주석이 참석해 “시진핑 주석이 윤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환영하며 초청한다”는 의사를 전했다. 왕 부주석은 “한국이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발전하고 나라는 태평하며 백성은 편안하기를 축원한다는 시진핑 주석의 말을 전한다”며 “서로에게 우호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앞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윤 대통령 당선 직후 축전을 보냈다. 시진핑 주석은 축전에서 “한국과 중국은 서로 가까운 이웃이자 중요한 협력 파트너다. 수교 이래 한·중 관계가 빠르게 발전했으며 양국의 발전과 번영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면서 “한중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안정적으로 추진해 양국에게 행복을 선사하길 원한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 서울 용산 집무실에서 일본 축하 사절인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을 접견하고 일본 총리의 친서를 전달받고 있다.

▶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일본은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이 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친서를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기시다 총리가 보낸 친서에는 “현재의 국제 정세 속에서 한미일의 전략적 연대가 필수적이며 한일 관계개선을 위해 양국 간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총리 역시 앞서 윤 대통령 당선 직후 전화통화를 통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통화에서 “한일 관계개선을 위해 함께 협력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영국, 캐나다, 호주 총리는 윤 대통령 당선 직후 곧바로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영국과 한국은 동맹국이자 친구의 나라”라며 “함께 자유를 지키고 교역을 증진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말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역시 윤 대통령 당선 직후 성명에서 “양국은 주요 20개국(G20)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에서 이미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2023년이 상호 수교 60주년인 만큼 함께 더 큰 번영의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호주와 한국이 강한 파트너십을 통해 더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웅장한 청와대 위용과
빼어난 경관에 놀라
역사적 개방 순간 함께해 감격”





5월 1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가
시민들에게 개방됐다. 시민들이 청와대 본관 앞
잔디밭을 거닐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1 5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에서 청와대 개방을 축하하는 '신명의 길을 여시오'가 열리고 있다. 2 서울 사는 김준구(71) 씨와 선우현(71) 씨는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청와대를 직접 보니 감회가 새롭다. 또 오고 싶다"고 말했다. 3 5월 10일 오후 청와대 앞 거리에서 펼쳐진 흥겨운 농악놀이 4 5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개방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이 청와대 관저를 둘러보고 있다. | 1~4 공동취재사진 2~3 김미영 기자



청와대 국민 품으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 행사가 열린 5월 10일 청와대가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 이행된 결과다. 이날부터 관람객들은 기존 청와대 관람 동선에 있던 본관, 영빈관, 녹지원 외에도 관저, 침류각 등을 볼 수 있게 됐다. 청와대를 전부 개방한 것은 정부수립 이후 처음이다.

기념행사는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의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 ‘우리의 약속’을 주제로 한 축하공연으로 시작됐다. 청와대 문은 오전 11시 40분경 무궁화 문양이 새겨진 정문을 통해 지역 주민, 학생, 소외계층 등 초청된 국민 대표 74명이 경내로 들어서며 활짝 열렸다. 개방 첫날인 이날은 사전 신청을 통해 선정된 2만 6000명이 관람했다.

청와대 주변은 이른 아침부터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지난 74년간 대통령의 공간으로 베일에 싸여 있던 청와대 내부를 관람한다는 기대감에 시민들의 표정은 한껏 들떠 있었다. 새벽부터 기차를 타고 남편·딸과 함께 충남 대천에서 올라온 한춘자(79) 씨는 “사전 신청한 직후부터 일주일간 청와대를 볼 기대감에 매일 밤잠을 설쳤다”며 “개방 첫날, 그것도 가장 먼저 청와대 경내를 걷는 뜻깊은 경험을 하고 싶어 일찍부터 서둘렀다”고 말했다.

화창한 봄날 따사로운 햇살 덕분인지 청와대 입장을 기다리는 시민들의 표정도 밝고 활기찼다. 인파 속에서 입장을 기다리는 순간에도 축제를 즐기듯 삼삼오오 웃음꽃을 피우며 대화를 즐기는 이들도 보였다. 친구들과 함께 방문한 장미진(46) 씨는 “얼마 전까지 엄두도 못 냈던 청와대에 왔다는 것 자체로 의미가 크다”며 “한 시간 전부터 도착해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데 벌써부터 설레고 가슴이 뛰다”고 말했다.



“청와대 개방 역사적 순간 함께해 영광”

이날 시민들은 경내를 걸으며 전날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식 집무를 봤던 본관, 전통 한식 가옥으로 외빈 접견에 쓰였던 상춘재, 국민 만찬 등에 쓰이던 영빈관, 청와대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알려진 녹지원, 대통령이 거주했던 관저 등을 둘러봤다.

녹음이 우거진 청와대를 찾은 이들은 한결같이 웅장하고 잘 가꾸진 청와대 조경을 보며 “대박”, “최고” 등의 감탄사를 연발했다. 배원영(55) 씨는 “텔레비전에서만 봤던 파란 기와의 위용과 아름다움에 매료됐다”며 “청와대가 시민들의 안식처이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잘 보존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람객 다수는 50~80대의 중장년층이었다. 지역의 경로당이나 노인회관 등에서 버스를 동원해 단체 관람 온 이들도

상당했다. 마을 주민 40여 명과 함께 전북 정읍에서 온 김보형(50) 씨는 “청와대가 국민 품으로 오게 돼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개방 첫날의 감동을 만끽하고 싶어 사전 신청을 했다는 이요환(83) 씨는 “살아생전 청와대를 직접 눈앞에서 보게 될 날이 올 줄 몰랐는데 역사적 순간을 함께해 영광”이라며 “국민과 소통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 뜻에 따라 청와대가 개방된 만큼 ‘화합과 통합의 상징’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10대부터 20~30대 등 가족, 친구, 연인 단위로 온 경우도 있었다. 서울 서초구에서 온 대학생 이지안(26) 씨는 “집무실 이전 논란과 별개로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청와대에 대한 막연한 궁금증으로 신청했는데 예약에 성공했다”며 “청와대의 웅장함과 빼어난 경관에 놀랐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국민에게 개방한 대통령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청와대 내부는 예약한 사람만
입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전 관람
신청을 못했음에도 개방 현장을
참관하기 위해 온 시민도 많았다.**

5월 1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대정원에서
종묘제례가 열린 가운데 시민들이 관람하
고 있다. 6월 10일 청와대 개방 행사에 참
가한 시민들이 청와대 경내 문화유산인 오
운정을 둘러보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색다른 데이트 코스 삼아 찾은 연인들은 청와대를 배경으로 사진 찍기에 분주한 모습이였다. 정준형(32) 씨와 김수아(29) 씨는 “큰 기대 없이 봄나들이 삼아 방문했는데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다”며 “파란 하늘, 초록색 나무, 형형색색의 꽃들까지 데이트 코스로도 완벽하다”고 말했다.

화기에애한 표정으로 무궁화 문양이 있는 문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던 강준구(71) 씨와 선우현(71) 씨는 “처음 개방된다고 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친구들과 함께 왔다”며 “관저 내부를 못 봐 아쉬지만 내가 사는 서울에 이런 곳이 있다니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선 씨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오고 싶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공간에 들어오다니… 아름답고 놀라워”

청와대 내부는 예약한 사람만 입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전 관람 신청을 하지 못했음에도 개방 현장을 참관하기 위해 온 시민도 많았다. 경기 안양에서 온 최성희(52) 씨는 “개방 첫날 생생한 현장과 의미를 느끼고 싶었으나 사전 신청에서 탈

락했다”며 “아쉬움을 달래려고 용기를 냈는데 감회가 새롭고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소감을 밝혔다.

가족과 함께 청와대를 방문한 이지선(40) 씨는 “청와대 경내를 직접 밟고 싶어 큰맘 먹고 예약을 신청했는데 운 좋게 당첨됐다”며 “사실 마음이 ‘기대 반, 걱정 반’이었는데 하늘에 뜬 무지개를 보고 안도했다”고 말했다. 이 씨의 남편 역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는 분이 많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청와대를 개방했던 초심으로 앞으로도 국민만 바라보며 정책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관람은 5월 11일부터 21일까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2시간 간격으로 6차례에 걸쳐 회차별 6500명씩 예약 당첨자에 한해 입장이 가능하다. 매일 3만 9000명이 관람할 수 있다. 5월 22일은 추후 공지를 통해 별도로 신청으로 운영된다. 5월 23일 이후 청와대 개방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김미영 기자

청와대 찍고, 북악산 등반까지 해보자

청와대 개방 행사가 열린 5월 10일 오전 7시부터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시작하는 북악산 등산로도 전면 개방됐다. 이번
에 추가로 개방되는 북악산 등산로는 청와대 서남쪽에 자리
잡은 '칠궁(七宮)'에서 백악정까지 600m와 청와대 동남쪽에
있는 춘추관에서 백악정까지 800m 두 곳이다. 이로써 청와
대 뒤편 백악정 대통문 개방으로 청와대를 둘러본 뒤 대통문
을 지나 북악산에 이르는 코스 등반이 가능해졌다.

이번에 개방된 코스는 기존에 운영하던 창의문·청운대·곡
장·숙정·말바위·삼청 등 6개 코스와 별개다. 1968년 이른바
'김신조 사건' 이후 출입이 금지됐던 북악산 한양도성이 54년
만에 온전히 국민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

청와대에서 출발하는 북악산 등반은 본관을 기준으로 왼
쪽(서편 코스) 칠궁 뒷길과 오른쪽(동편 코스) 춘추관 뒷길 두
지점에서 가능하다. ▲서편 코스는 '칠궁 뒷길(경복고 맞은편)
→ 백악정 → 대통문 → 북악산' ▲동편 코스는 '춘추관 뒷길
(금용연수원 맞은편) → 백악정 → 대통문 → 북악산'이다.

서울시는 북악산 추가 개방에 맞춰 등산로 구간 정비를 마
쳤다. 백악정~북악산 등산로 연결 구간(약 300m)은 데크와
계단을 설치하고 낙상 방지를 위해 나무 난간을 설치했다. 그
외 구간에는 낙상 방지용 보호 난간을 보강하거나 안내 표지
물을 추가했다.

등산객 인원은 제한 없으며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자유롭
게 출입이 가능하다. 다만 사전 관람 신청 시스템을 통해 경
내 관람객으로 선정되지 못한 일반 등산객은 청와대 경내 관
람을 할 수 없다. 해설 프로그램은 별도 예약 없이 희망자 누
구나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현재 등산로 개방 시간은 오전 7시~오후 7시다. 다만 입산
은 오후 5시까지로 제한한다. 개방 시간은 봄·가을 오전 7시
~오후 6시, 여름 오전 7시~오후 7시, 겨울 오전 9시~오후 5
시 등 계절별로 달리 운영한다.



삼청공원 쪽에서 북악산 남쪽 등산로를 오르는 코스에 삼청안내소가 새로
문을 열었다. | 한겨레

북악산(명승 '서울 백악산 일원')은 1396년 한양도읍(경복
궁)의 주산으로 삼을 정도로 풍수지리적으로 중요하다. 최근
까지 관람객에게 개방되지 않은 덕분에 한양도성과 성문의
원형을 가장 잘 보존한 구역이다. 한양도성 성문 중 가장 인
지도가 낮은 숙정문이 있다.

북악산 등반객의 편의를 돕는 청와대·백악산 주변 명소를
안내하는 증강현실(AR) 서비스에 기반을 둔 '점프(JUMP)' 애
플리케이션(앱)도 이날 선보였다. 사용자가 JUMP 앱을 휴대
전화에 설치한 후 접속하면 AR 서비스 '백악이(호랑이를 의
인화한 캐릭터)'가 등장해 장소와 안내판을 바탕으로 현장에
대한 해설과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준다.

AR 구현 장소는 만세동방 약수터, 옛 군견 훈련장, 한양도
성 옆길, 백악마루, 촛대바위 쉼터, 청운대와 청운대 쉼터, 법
흥사 터, 청와대 헬기장, 1·21사태 소나무 등 역사·문화적으
로 가치가 뛰어난 주변 명소 10곳이다.

한편 서울시는 7월 16일 '2022 서울 트레킹' 행사로 청와대
에서 북악산에 이르는 코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코스 등반과
함께 문화예술해설사에게 인문학 강의를 들을 수 있다.

국민과 더 가까이 출근하는 대통령

새로운 소통 용산 시대 개막의 의미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돼 '대통령실 용산 시대'가 열렸다. 윤 대통령은 취임 당일 오후부터 국방부 청사에 마련된 새 집무실에서 업무를 개시했다. 기존 청와대는 곧바로 일반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됐다. '광화문 대통령실 시대'가 막을 내리고 '용산 시대'가 개막한 것이다. 근현대 150년 격변의 용산은 대한민국 현대사를 그대로 압축해놓은 듯한 땅이다.

용산역사박물관에 따르면 용산은 철도망을 매개로 한반도 곳곳을 연결하는 철도·상업도시, 이태원동·한남동 등 외국인 거주지를 비롯한 국제도시, 용산전자상가를 대표로 하는 기술도시, 근현대사 문화를 품고 있는 문화도시다. 상업·국제·기술·문화 속에 이제는 전체 330만㎡(100만 평)가량 규모로 탁 트일 용산공원 일대에 정치도시(대통령실) 면모까지 갖추게 됐다. 공원을 산책하면서 대통령 집무실 풍경을 구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4월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며 거듭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과 ‘국민 소통’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시도가 번번이 좌절된 경험에 비취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다. 또다시 국민과 약속을 저버린다면 다음 대통령 누구도 이것을 새로이 시도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과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돼 '대통령실 용산 시대'가 열렸다.

윤 대통령은 취임 당일 오후부터 국방부 청사에 마련된 새 집무실에서 업무를 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출근한 뒤 청사 사무실을 순방하고 있다. | 대통령실사진자단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를 국민 여러분께서
헤아려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윤석열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용산은 ‘주한
미8군 기지 금단의 땅’에서 정치 1번지로 변모하게 됐
다. 윤석열 대통령이 3월 20일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공식화한 이후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

은 본궤도에 올라 진행됐다. 10층짜리 용산 국방부 본
관(신청사) 건물의 1~5층에 대통령 집무실, 비서실을
포함한 주요 보좌관 사무실, 경호처, 기자실 등이 배치
됐다.

6층 이상은 민관합동위원회 사무국과 회의실 등이
입주했다. 6월쯤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과 기자

③

Q&A **줄속 추진 아닌가요?**

**충분히 검토하고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①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당선인의
주요공약으로 후보시절부터
충분히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② 당선인을 비롯해 민수위원과 전문가들이
수차례의 현장방문, 여론수렴, 토론회 등
이전검토를 했습니다.

④

Q&A **현청와대보다
구중궁궐이 되진 않나요?**

**명실상부
국민 소통의 장이
탄생합니다.**

① 용산공원을 국민 소통의
장으로 활용합니다.

② 수시로 기자와 만나고
대화하겠습니다.

용산 대통령실(5층)과 백악관 집무실 구조 비교

자료: 대통령실



실 등을 이전하는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청와대 경내 배치 구조는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과 비서실(여민관), 기자실에 해당하는 춘추관 등이 모두 별개 동으로 떨어져 있었다.

외빈 환영 만찬 여는 '간이 영빈관'도 마련

윤 대통령은 국방부 청사 2층의 주 집무실과 5층의 보조 집무실을 오가며 일한다. 5층 집무실은 애초 2층 공사가 늦어지면서 취임 직후 임시로 사용하려고 마련

한 공간이지만 6월경 주 집무실이 완공된 후에도 유지하기로 했다.

양쪽 집무실 모두 회의실과 접견실을 갖추고 있다. 2층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사무실과 부속실, 경호처 관계자들이 쓰는 일부를 빼면 전부 대통령 업무 공간으로 꾸며졌다. 국무회의나 수석보좌관 회의 등이 2층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2층에는 최대 2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대규모 시설을 마련했다. 외빈을 위한 환영 만찬을 여는 등 '간이 영

⑤



⑥



집무실은 용산공원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집무 중에 공원을 거니는 시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구조를 염두에 두고 있다. 시민들이 집무실에서 일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공원에서 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빈관'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5층에는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장실, 국가안보실장실, 경호처장실을 비롯해 5명의 수석비서관실이 나란히 늘어서 있다. 대통령 집무실을 수시로 오가며 소통할 수 있도록 한 배치라고 볼 수 있다.

나머지 층에는 비서실, 경호처, 민관 합동위원회가 골고루 배치됐다. 이동식 칸막이로 언제든지 공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같은 건물 지하 2·3층에는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설치됐다. 각종 재난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집무실 이전을 공약하며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들과 최고의 민간 인재들이 하나로 뒤섞여 일하는 곳으로 대통령실이 확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분야별 민관 합동위원회를 통해 외국인을 포함한 민간 전문가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국가적 의제를 발굴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과 국민 거리 더욱 가까워져

윤 대통령이 권위적인 대통령의 모습을 내려놓고 국민과 소통을 목적으로 집무실 이전을 추진한 만큼 집무실 이전은 새로 열릴 용산 시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경호 체계도 획기적으로 바뀐다. 대통령과 일반 국민의 분리·차단을 목표로 하던 기존 경호 방식에서 탈피해 무장한 경호원의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 ‘열린 경호’를 도입한다. 대통령과 국민의 거리를 더욱 가깝게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집무실은 용산공원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집무 중에 공원을 거니는 시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구조를 염두에 두고 있다. 시민들이 집무실에서 일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공원에서 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시민들이 철제 담장 사이로 대통령 집무실 건물을 볼 수 있는 미국 백악관 집무동 ‘웨스트 윙’의 수평적 구조를 연상케 한다. ●

조계환 기자

7

Q&A 국방부 내 병커는 국가적 대형 재난 대응이 어렵지 않나요?

재난 대응을 위한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① 국방부·합참에는 군지휘통신망, 국가지도통신망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② 재난안전통신망은 행정안전부가 중앙서버를 운영하고 있어 국방부 병커에 네트워크를 연결하면 문제없습니다.



8

Q&A 지역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지 않나요?

지역 주민 불편을 꾸준히 해소하고 보완할 것입니다



첨단 과학 경호 도입, 차량 통제 최소화로 주민 불편을 줄여나겠습니다.

집무실 앞뜰에 ‘한국판 센트럴파크’

‘시민 친화’ 집무실 앞 녹색공원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집무실 앞뜰에 용산공원이 들어선다는 점이다. 현재의 국방부 청사를 대통령 집무실 이전지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집무실 주변에 조성할 계획인 용산공원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국방부 앞뜰은 주한미군의 용산기지 완전 반환 뒤에 용산공원으로 바뀐다. 전체 미군기지의 4분의 1가량에 해당하는 50만㎡ 규모의 미군기지 일부가 2022년 5월 말에 우선 반환된다. 윤석열정부는 2022년 말 조성을 목표로 이곳을 공원화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집무실 오른쪽과 남쪽 전면에 자리할 용산공원 조성 계획도 관심이다. 현재 용산기지 부지는 전체 반환

예정 부지(203만㎡)의 약 10%인 21만 8000㎡ 정도가 반환된 상태다. 이를 대통령 집무실 예정지 앞 부지를 포함해 반환을 조속히 마무리해 용산공원 조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최소한 50만 평(165만㎡) 정도의 공원을 시민들께 돌려드리는 것”이라며 “서울에 과거에 이런 공원이 없었다. 여기(용산 부지)는 공원을 이렇게 (조성)하게 되면 잔디밭에서 결혼식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집무실 건물 부지부터 전쟁기념관 일대로 이어지는 공간을 전부 합치면 전체 330만㎡(100만 평) 규모에 이른다. 장기적으로 이 구역 전체를 공원화한다는 구상인데 집무실 앞마당 격에 해당하는 전면 공원은 165만㎡(50만 평) 정도가 될 거라는 추산이다.

국가 공원으로 추진되는 용산공원은 용산기지의



용산 대통령 집무실·시민
공원 조감도

**주한 미군기지 반환과 함께 용산공원이 계획대로 조성된다면
대통령 집무실을 중심으로 서울의 심장부에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대규모 녹지공원이 생기게 된다.**

경기 평택 이전으로 반환되는 부지를 국민에게 돌려 준다는 원칙에 따라 시작된 사업이다. 국회가 2007년 용산공원 특별법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2011년 정부가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공원 조성의 기반을 닦았다.

당초 정부는 미군으로부터 전체 용산기지를 2016년까지 넘겨받겠다는 가정하에 2027년 용산공원을 개원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한미 간 협의로 기지 반환 일정이 미뤄지자 2021년 말 2차 변경 계획에서는 기지 반환 시점을 특정하지 않고 반환 후 7년 이내에 공원 조성을 완료해 개원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용산공원에서 대통령 집무실 육안으로 확인

대통령 집무실이 옮겨올 국방부 청사와 인접한 주한미군 장군 숙소 부지도 이르면 연내 공원으로 조성돼 시민에게 개방될 전망이다. 2월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사우스포스트 구역(총 16만 5000㎡)의 미군 장군 숙소 부지로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국방부 청사에서 남서쪽으로 약 300m 거리에 5만 7000㎡ 규모로 조성돼 있다.

주한 미군기지 반환과 함께 용산공원이 계획대로 조성된다면 대통령 집무실을 중심으로 서울의 심장부에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대규모 녹지공원이 생기게 된다.

국토교통부 정책 담당자는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옮겨오는 만큼 인근에 있는 장군 숙소 반환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절차를 먼저 밟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용산기지 반환이 단번에 이뤄지지 않고 부분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반환된 부지를 먼저 임시 개방하고 전체 반환이 이뤄진 뒤 전체 부지를 정

화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식으로 용산공원이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무실 밖을 나오면 공원이 곧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통령의 2층과 5층 집무실에서 창가 너머로 공원을 오가는 시민들을 볼 수 있다. 집무실과 용산공원 사이엔 2.4m 높이의 철제 울타리만 칠 예정이다. 어른 키를 조금 넘는 높이로 시민들이 울타리 사이로 경내를 들여다볼 수 있는 미국 백악관 스타일을 본따르기로 했다. 공원을 찾는 시민들은 대통령 집무실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공원 입구와 집무실 주변엔 금속 탐지 기능, 적외선카메라 등을 탑재한 무인 인공지능(AI) 경호 체제를 가동한다. 시민들이 특별한 검문 검색 없이 자유롭게 용산공원을 드나들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공원 안팎에는 사복 경호원을 곳곳에 배치해 시민들이 위화감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안전하게 집무실 주변을 다닐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

조계환 기자

**3권 수장 모인 정치 1번지
‘한남동 관저타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촌이 입법·사법·행정 3권 수장의 거처가 모두 모여 있는 ‘정치 1번지’로 변모한다. 국회의장·대법원장 공관에 더해 현 외교부 장관 공관이 대통령 관저로 바뀌면서다. 주로 ‘관저’라는 명칭은 대통령이 사는 곳에만 사용한다. 외교부 장관 공관이 대통령 관저가 되면서 명실상부한 ‘한남동 관저타운’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한남동 공관촌에는 이들 공관을 비롯해 국방부 장관·합동참모의장·육군참모총장·한미연합사부사령관·해병대사령관 공관 등 8개 공관이 모여 있다. 한남동에 주로 군 지휘부 공관이 자리한 것은 용산 미군기지, 국방부와 인접한 때문이다. 한남동 주변에는 54개국의 외국 공관도 몰려 있다.

외교부 장관 공관은 문재인정부 때 12억 원을 들여 시설을 개선하는 등 비교적 잘 관리된 점이 고려돼 대통령 관저로 최종 낙점됐다. 대지면적 1만 4710㎡(약 4450평)에 건물면적 1434㎡(약 434평)로 생활공간 외에 면담, 연회, 만찬 용도의 별도 공간을 갖춰 외교 행사에 최적화됐다는 평가다.

고용 통해 성장과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복지

새 정부 복지정책 방향

새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와 개혁 방향이 제시됐다. 기본적인 문제 인식은 우리 사회가 고용 없는 성장에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펼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이에 따라 복지정책의 기조를 ‘고용을 통해 성장과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복지’로 잡았다”라고 설명했다.

또 윤석열정부 5년 동안 추진할 개혁 방향은 세 가지라고 밝혔다. 첫째 현금성 복지는 노동시장 취약계층과 아동, 노인, 장애인 중심으로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것. 두 번째 전 국민에게 필요한 보육, 돌봄, 간병 등 사회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것. 세 번째는 복잡한 복지체계의 조정과 공적연금 개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현금성 복지 지원에서 가장 먼저 추진할 과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지원 대상과 수준의 확대다. 아직 구체적인 생계급여 지급 대상의 선정 기준을 밝히지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때 생계급여 대상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현행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에서 35% 이하로 조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또 생계급여 대상 기준의 재산 요건도 완화할 가능성이 크다. 현행 제도는 수급자의 부동산 등 재산 가액에서 기본 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한 뒤 남은 금액에 소득 환산율을 곱해 일정 기준 이하면 생계급여를 지급하는데 환산액보다는 환산율을 조정해 대상자를 늘릴 것으로 보인다.

노인 계층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민간과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맞춤형 노인 일자리를 확충한다. 기초연금은 현행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리며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면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부모급여 지급 위해 부모보험 도입 필요

노동시장에 진입해 있으면서도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에게는 근로장려세제(EITC)에 근거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을 넓히고 최대 지급액도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기준인 가구당 총 연간 소득은 현행 최대 3600만 원에서 4320만 원으로, 올해 기준 300만 원인 연간 최대 지급액도 330만 원으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 주기의 단축도 검토 과제로 논의 중이다. 현행 근로장려금의 경우 전년도 또는 이전 반기의 소득을 기준으로 연 1~2회 지급되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취약계층의 위기 대응에 대한 지원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월 단위로 소득정보 파악 주기를 단축하는 체계를 구축하면 근로장려금 지급 주기도 최소 분기 이하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출산 장려 및 아동 복지와 관련한 새로운 정책 과제로는 윤 대통령이 공약한 부모급여 제도가 눈에 띈다. 부모급여는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 출산 직후부터 12개월 동안 월 최대 100만 원씩,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주는 제도다. 올해 월 30만 원으로 시작해 2024년까지 100만 원으로 높인다는 시행 일정을



인수위는 제시했다. 부모급여는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육아휴직 급여나 출산휴가 수당을 통합, 확장한 개념이다.

다만 부모급여의 안정적 지급을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보험인 가칭 부모보험 도입이 필요하다. 고용보험료를 기반으로 한 육아휴직 급여나 출산휴가 수당은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법적 수급권이 보장된 '반쪽 복지'이기 때문이다.

부모급여는 현행 육아휴직 급여의 낮은 소득 대체율과 사각지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방안이다. 육아휴직 급여는 월 최대 150만 원을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데 휴직 전 소득보다 적을 수밖에 없고 자영업자와 전업주부 등 광범위한 계층이 지급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다. 2021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계층이 전체 취업자의 51.6%에 이를 만큼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다.

이에 따라 부모보험을 도입해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급여 수준을 높이는 게 보건복지부 안이다. 부모보험이 도입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이어 여섯 번째 사회보험이 탄생하게 된다. 부모보험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추가 징수하는 방안과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까지 공동 분담하는 혼합형이 논의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때 생계급여 대상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현행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에서 35%

이하로 조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 서울 용산에 새로 마련된 대통령 집무실에서 김대기 비서실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참모들과 오찬 회동하고 있다. |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발달장애인 돌봄체계와 돌봄서비스 강화

만 0~5세 미취학 아동 교육기관인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단계적 '유보 통합'으로 개혁을 추진한다. 유보 통합은 황령과 불투명한 재정 문제 등이 심각한 유치원과 100% 감시가 가능한 어린이집을 통합해 정부의 감독·감시를 강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초등학교 정규수업 이후 보육·교육을 맡는 돌봄교실은 저녁 7~8시까지로 운영을 연장해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도 덜어준다. 안 위원장은 "돌봄교실에서 코딩 교육과 원어민 어학 교육, 독서·토론 같은 미래형 교육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복지에서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도입해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를 꾀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장애인 지원 예산은 자립센터나 복지관 같은 장애인 활동지원 중개기관을 통해서 집행되고 있다.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통제권이 장애인이 아닌 중개기관에 있는 셈이다.

활동지원 중개기관은 보조인에게 활동 지원금을 지급하며 수수료도 따로 책정해간다. 그 때문에 장애인 지원 예산이 늘어나더라도 과도한 중간 수수료 문제가 수시로 불거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장애인 개인예산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미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다. 장애 등급과 유형별로 개인별 맞춤 지원 계획을 수립한 뒤 예산이 지원되고, 활동지원은 중개기관 없이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간 1:1 관계로 이루어진다. 각각의 장애인에게 예산을 지급하는 방식이기에 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복지 폭이 넓어지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발달장애인 돌봄체계와 돌봄서비스 강화도 새 정부 복지정책의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장애인 건강권, 이동권 등 장애와 비장애의 차별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

박순빈 기자

무엇이 국민을 이롭게 하는가?

5월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새 정부의 국정 비전과 국정과제를 뜯어보면 모든 정책을 관통하는 국정 철학은 '민간 주도'다. 민간이 이끌고 정부가 미치는 방식이 경제를 창의적이고 역동적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110대 국정과제로 본 윤석열정부 국정철학

윤석열정부의 정책 키워드는 '민간 이니셔티브(주도권)'다. 5월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새 정부의 국정 비전과 국정과제를 뜯어보면 모든 정책을 관통하는 국정 철학은 '민간 주도'다. 민간이 이끌고 정부가 미치는 방식이 경제를 창의적이고 역동적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날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발표한 국정비전에는 그동안 정부가 이끌었던 경제를 기업과 일반 국민으로 전환해 민간의 창의와 역동성을 끌어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국민 개개인이 잘 사는 나라가 실질적인 선진국이기 때문에 '무엇이 국민을 이롭게 하는가'를 기준으로 정책을 만들고 '이념이 아닌 국민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자는 원칙을 세웠다. 국익과 실용 중심의 외교 전략, 튼튼한 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영향을 주는 국가'로 탈바꿈하겠다는 것이다.

제왕적 권력 내려놓고 소통하는 대통령

국정비전을 구현할 '6대 국정목표'는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 국정 4대 기본 부문에 '미래'와 '지방시대'를 더했다. 새 정부의 미래 지향성과 함께 대한민국 재도약의

선결 조건인 지역 불균형 해소의 의지를 담았다. 6대 국정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치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이다.

이날 공개된 110대 국정과제에는 코로나19 피해를 온전히 치유하고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고 탈원전으로 무너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부금과 세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단체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됐다.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고 소통하는 대통령,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통한 효율적인 국정운영도 강조됐다. 또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기 위해 전면적인 규제개혁 추진, 주식 양도소득세 단계적 폐지 등 과세제도 합리화를 추진한다. 민간의 혁신역량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디지털 자산 등 미래를 위한 혁신금융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역대 정부에서 추진하지 못했던 연금개혁을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과학기술 주요 5개국



5월 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발표회에서 한 인수위원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G5)을 목표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초격차 전략 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우주 시대 개막을 위해 기술 역량을 확보하며 세계 최초 사례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초강국으로 도약하고자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와 함께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로 한반도 비핵·평화를 실현해 통일의 기반을 닦겠다고 했다. 장병들의 복지 여건을 개선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끝까지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정과제 이행 위해 209조 원 추가 필요

‘서울 공화국’을 탈피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이미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대국민 보고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별도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 같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209조 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제안센터를 통해 폭넓은 의견 수렴을

진행했는데 ▲동물학대 처벌 강화 ▲주식시장 공매도 개선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등 국민이 원하는 정책 사항도 충실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5대 국정목표별로 예상 재원도 공개됐다.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구현 54조 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치는 역동적 경제’ 13조 원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65조 원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61조 원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에 16조 원 등이다.

인수위는 “새 정부는 강력한 재정지출 재구조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 등을 통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했다. 이날 인수위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는 새 정부 출범 후 각 부처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윤석열정부 국정과제’로 확정됐다. 시작이 반이다. ●



● 이준재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추경 59.4조 원

소상공인 등 370만 명에 600만 원+α

정부 대책 종합

윤석열정부가 출범 사흘 만에 올해 정부 지출을 60조 원 가까이 늘리는 역대 최대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마련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1명당 최소 600만 원씩 손실 보상을 하겠다는 윤 대통령 공약에 따라서다.

윤석열정부는 5월 12일 첫 국무회의를 열어 59조 4000억 원 규모의 윤석열정부 첫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5월 13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는 5월 16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 측으로부터 추경안에 대한 첫 시정 연설을 듣고 5월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차례로 열어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추경안 중 초과세수에 따른 법정 지방이전 지출(40%) 23조 원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에 나눠 주면 일반 지출은 36조 4000억 원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 경제팀은 거시 경제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복잡한 난제를 안고 출범하게 됐다”며 “추경안은 이런 책무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 이행 23조 원 투입

소상공인 지원에 26조 3000억원이 쓰이며 특히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인 코로나 손실 보상 이행에 23조 원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370만 명에게 1명당 손실보전금 600만~1000만 원을 지급한다. 당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액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공약 파기’ 논란이 일자 지원액을 늘렸다. 최소 600만 원을 일괄 지급하고 업체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추경 예산안 편성을 위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별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율, 업종 등에 따라 200만~4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법상 손실보상 보정률(손실액 대비 보상액 비율)도 기존 90%에서 100%로 높이고 분기별 최소 보상액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정부는 지난 3~4월 급증한 코로나 진단 검사비와 확진자 지원비, 치료제 구매 등에 6조 1000억 원을 투입하고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에 3조 1000억 원을 쓰기로 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 생활안정지원금 가구당 최대 100만 원(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하고 기존 코로나 지원의 사각지대였던 방과후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70만 명에게는 고용안정지원금을 100만 원씩 지원한다. ●

심은하 기자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 지원

국채 발행없이, 59.4조원 규모의 추경 추진
초과세수에 따른 법정 지방이전지출 제외시 36.4조원



1 소상공인 지원 26.3조원

온전한 손실보상 | +24.5조원

- ☑ 손실보전금 맞춤형 지급:
업체당 600~1,000만원*, 370만개사
* 지원금액은 업체별 매출액·피해수준,
업종별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산정
- ☑ 1·2차 방역지원금 포함 최대 1,400만원

- ☑ 완전한 손실 보상을 위해 제도개선 병행
 - ① 손실보상 보장률 100%로 상향
 - ② 분기별 하한액 100만원으로 상향

40조원+α 긴급 금융지원 | +1.7조원

- ☑ 3조원 규모 긴급자금 특례보증(재정+0.2조원)
- ☑ 7.7조원 규모 저금리 대출 전환(재정+0.8조원)
- ☑ 30조원 규모 채무조정(재정+0.7조원)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 | +0.1조원

- ☑ 재도전장려금 등 재기 지원(+0.05조원)
* 재도전장려금: 5만개사, 업체당 100만원
- ☑ 판로 확대·스마트화 등 자생력 강화(+0.04조원)

2 방역 보강 6.1조원

- ☑ 3월 확진자 급증에 따른 추가적인
방역소요 보강(+3.5조원)
* 진단검사비, 재택·입원 치료비, 생활지원·유급휴가비

- ☑ 먹는치료제 추가 공급 등
일반 의료체계 전환(+2.6조원)
* 먹는치료제(100→200만개), 주사용 치료제(+5만개)

3 민생·물가안정 3.1조원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 +2.8조원

- ☑ 저소득층 생활지원금 한시 지급(+1조원)
* 227만 가구,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가구)
- ☑ 정책자금 3종 패키지 20조원+α 공급(+0.2조원)
 - ① 안심전환대출(신규 20조원)
 - ② 청년·대학생 소액금융(+0.1조원)
 - ③ 최저신용자 특례 보증(신규 0.2조원)
- ☑ 취약계층 지원사업 대상·단가 한시 확대(+0.5조원)
 - ① 에너지바우처: +30만가구, 12.7→17.2만원
 - ② 긴급복지: +12만명, 131→154만원(4인가구)
 - ③ 기타: 병 급식비 단가상향, 근로장학금 확대 등
- ☑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소득 안정 지원(+1.1조원)
 - ①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70만명, 100만원)
 - ② 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16.1만명, 200만원)
 - ③ 저소득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3만명, 100만원)

생활물가 안정 지원 | +0.3조원

- ☑ 서민·농어가 부담 경감(+0.2조원)
 - 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확대(+0.06조원)
 - ② (농가) 무기질 비료가격인상분의 80% 보조
 - ③ (어가) 수입수산물 비축·수매 지원, 정책금리 인하
- ☑ 업계 가격인상 요인 최소화 지원(+0.1조원)
 - ① (제분업체) 밀가루 가격인상 소요의 70% 국고 한시 지원
 - ② (중소상공업체·외식업체) 용자 확대

산불 복구·대응 지원 | +0.1조원

- ☑ 산불 피해 지역 복구 및 주민 지원
* 피해농가(400가구) 지원, 희망근로(600명) 등
- ☑ 산불 대응 장비 및 예방인프라 확충
* 고성능 산불전화차량(신규 9대), 소방헬기 해연물탱크
장착(10대) 등

4 예비비 보강 (코로나 재확산, 재해 등에 신속 대응) 1.0조원

· 지방재정(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23.0조원

일반지출
36.4조원

법정지출
23.0조원

재원조달

초과세수
44.3조원*

세계잉여금 등
8.1조원

지출구조조정
7조원

추경안 59.4조원

*초과세수 53.3조원 중 나머지 9조원은 국채발행에 활용

“새 정부 100일 내 코로나19 대응체계 재정립”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5월 11일 “새 정부 출범 100일 내에 과학적이고 지속가능한 코로나 대응체계를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1총괄조정관은 “오늘 중대본에서는 4월 발표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의 과제들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코로나19 재유행에도 철저하게 대비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일상회복의 길로 안전하게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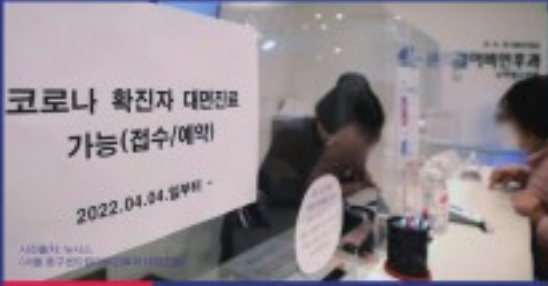
그는 “지난 4월 25일부터 시작된 4주간의 이행을 전문가들과 면밀히 살피고 평가하겠다”면서 “다음 주에 종합적인 평가를 거친 후 (일상회복) 안착기 진입 시점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1총괄조정관은 “오늘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중대본 회의”라면서 “우리는 일상으로 한발 한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여러 고비를 넘겨왔던 것은 국민 여러분의 인내와 노력 덕분”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방역수칙과 접종을 따라주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언급하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방역정책을 추진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한 백신과 충분한 치료제를 통해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위험군 하루 안에 검사·처방 받는다

앞으로 고연령층·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은 하루 안에 검사와 치료제 처방을 받는 고위험군 ‘패스트트랙’이 가동된다. 또한 검사와 진료 등으로 나뉜 코로나19 대면 진료 병·의원은 통합 정비되고 코로나19 치료 병상으로 운영되던



코로나19 100일 로드맵 과제 충실히 이행해나가겠습니다.

일반 의료체계 전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동네 병·의원 중심의 진단·치료체계 마련

- **코로나19 검사와 대면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 체계로 단순화하여 통합 정비**
- **고위험군 '검사부터 치료제 처방 하루 이내 실시' 되도록 패스트 트랙 가동**

응급·특수 환자 등 비(非) 코로나19 질환 대응 체계 강화

- **안착기 전환과 함께 응급병상·응급의료 인력의 코로나19 치료 병상 동원 해제**
- **코로나19 의심 응급환자 → 응급실 내 격리구역에서 검사 → 격리병상 등 입원**
- **분만·투석 등 특수치료도 일반 분만·투석 병상 등 격리 공간 적극 활용**

재유행 상황 대비 인프라 선제 구축

- **상시 대응 병상 확보 및 중환자 전담 간호사 추가 양성 등 전문·의료 인력 확충**

보건복지부

앞으로 고연령층·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은 하루 안에 검사와 치료제 처방을 받는 고위험군 ‘패스트트랙’이 가동된다.

응급실 병상과 의료진은 응급실 기능으로 단계적 복원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월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새 정부의 코로나19 100일 로드맵 과제 중 일반 의료체계 전환방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손 반장은 “일반의료체계의 전환은 안착기 이후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나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등 검사와 진료는 각 기능별로 여러 범주가 나뉘어 복잡하고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감염 관리 여건을 갖추고 코로나19 환자의 검사와 대면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 체계로 단순화해 통합 정비한다. 코로나19 대면진료 의료기관의 성격을 나타내는 새로운 명칭도 검토 중이다.

동네 병·의원의 지정 규모는 환자 발생 규모와 접근성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이용 불편이 없는 수준으로 유지하며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고위험군 패스트트랙을 도입, 고연령층·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하루 안에 검사와 치료제 처방을 받도록 한다. 입원 필요환자로 이환 할 경우 거점전담병원에 신속히 연계해 우선 입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환자 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중 예비기관을 선별·지정해 별도 관리하고 재유행 시 변이 특성을 고려해 절차에 따라 즉각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정부 24’로 온라인 신청

코로나19 진단으로 입원 또는 격리 시 지원하는 생활지원비를 5월 13일부터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은 정부24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신청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

된 환자는 온라인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다. 12일까지 격리 해제된 환자는 종전대로 읍·면·동 방문, 우편, 전자우편 신청을 받는다.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중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그동안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전자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5월 13일 서비스 개시일부터 격리가 해제된 환자는 정부24에 접속한 뒤 ‘보조금24-나의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조회 후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된다.

생활지원비 신청에 필요한 항목은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별도의 구비서류 등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내 가족이 확진된 경우도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 제공하므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환자가 노동자인 경우는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했음을 증빙하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또한 지난 4월 11일 이후 격리된 환자는 보건소에서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외에 격리통지 및 격리 해제 사실확인 문서가 필요한 경우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이용 방법은 정부24 누리집 첫 화면 ‘자주찾는서비스’에서 ‘격리통지서’ 또는 ‘격리해제사실확인서’를 선택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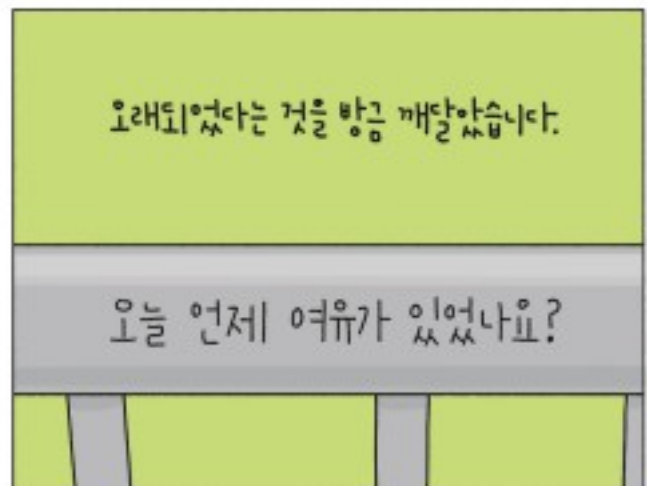
이용석 행안부 행정서비스추진단장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을 통해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생활지원비 접수·처리 과정에서 지자체 담당직원들의 업무 과중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임숙영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생활지원비 신청과 격리통지서 발급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이 마련돼 향후 코로나19 재유행 등의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

심은하 기자

슬기의 여유를 찾아서 그림 홍화정

01. 여유가 뭐였더라?





● 5월 싱그러움 가득한 맛난 해변길

부산 미포~대변항 '해파랑길 2코스'

떠나기 좋은 계절이다. 싱그러운 신록과 화사한 봄꽃이 절로 문밖을 나서게 하는 시절. 5월의 풍광 속에 계절의 별미까지 맛볼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이즈음 맛볼 수 있는 미식거리를 꼽자면 멸치를 빼놓을 수가 없다. 우리의 남동해안, 그중에서도 부산 기장 앞 바다에서는 요즘 멸치잡이가 한창이다. 대변항의 멸치잡이배가 선단을 이뤄 싱싱한 봄멸치를 건져 올리느라 새벽부터 분주하다.

파닥파닥 은빛 비늘 반짝이는 싱싱한 대멸은 부드럽고 고소한 게 핏감으로도 그만이고 시래기를 넣고 얼큰하게 지저낸 찌개는 최고의 밥반찬이 된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동부산 대표 축제인 기장 멸치축제도 5월 20일부터 사흘간 열린다. 대변항은 해파랑길 2코스(미포~송정~대변)의 종착지로 운치 있는 문탠로드와 송정 해변, 해동용궁사 등 해안을 따라 낭만의 걷기 코스가 줄지어 이어진다.

해파랑길 2코스는 동부산의 운치 있는 여정을 아우르는 길이다. 해운대 미포를 출발해 청사포~송정~해동용궁사~대변항에 이르기까지 부산의 매력 있는 풍광을 구슬처럼 썰 수 있는 코스다. 14.6km, 쉬엄쉬엄 6시간 남짓이면 흡족한 여정을 누릴 수 있다.

▲해파랑길 2코스에서 만나는 운치 있는 숲길. 청신한 숲과 푸르른 바다를 한꺼번에 느끼며 걸을 수 있다.

'월광욕'과 함께 하는 도심 속 일상탈출

미포~송정

해파랑길 2코스는 해운대의 여운이 가득한 미포가 출발점이다. 엘시티 옆길 오르막을 따라 달맞이길로 향한다. 도중에 동해남부선 폐선 구간을 이용한 해운대 블루 라인 파크가 나서는데 미포에서 송정 해변에 이르는 해변 열차와 미포~청사포 사이를 운행하는 스카이 캡슐을 탈 수 있는 곳이다.

달맞이길은 오르막을 따라 뱃나무 가로수가 줄지어 서있다. 4~5월이면 해풍에 흩날리는 꽃비가 장관이다. 숨이 찰 무렵



뒤를 돌아보는 풍광은 가히 압권이다. 해운대 해수욕장과 동백섬, 마린시티, 광안대교는 물론이고 해파랑길 1코스 이기대 해안 길까지 한 눈에 펼쳐진다. 길은 전망 포인트에서 부산이 자랑하는 ‘문탠 로드’를 따라 이어진다. ‘문탠?’ 생소하다. 햇빛(선탠)이 아닌 달빛에 몸을 맡겨 건강을 챙기는 풍류, ‘월광족’ 이란다. 이를테면 달빛을 쬌이는 ‘달맞이’인 셈이다. 달빛은 마음을 달래는 감성 에너지가 풍부해 이 달빛 아래를 거닐자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문탠 예찬론자들의 주장이다. 문탠로드는 이 같은 스토리텔링에 기반하

해파랑길 2코스



고 있다. 달맞이 길~달맞이 동산 오솔길~달맞이 어울마당~구덕포 등 3km 남짓 코스가 이어진다. 문탠로드는 ‘달빛 샤워’를 염두에 두고 길을 닦았지만 낮에 찾는 이들이 훨씬 많다.

문탠로드를 걷노라면 도심 가까이에 이처럼 자연친화적 공간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절로 든다. 우선 숲길에 접어들면 도

오뉴월 대변항의 진풍경 ‘멸치잡이’

멸치잡이 전진 기지가 있는 가장군 대변항은 동해의 아담한 포구다. 특히 해운대~송정과 지척으로 부산·울산 사람들에게는 주말·평일 나들이 명소로 통하는 곳이다. 마을 사람들의 멸치후텨 그물 당기는 모습을 곧잘 묘사한 오영수의 단편소설 <갯마을>의 배경도 바로 지척이다.

이즈음 대변항을 찾으면 온통 생멸치로 넘쳐 난다. 포구 주변 난전은 물론, 횃집, 건어물전에도 멸치가 지천이다. 멸치는 흔히 잡히는 시기에 따라 봄멸치와 가을멸치로 나뉜다. 봄철인 4~6월 산란을 위해 가장 인근 앞바다를 찾는 봄멸은 지방질과 타우린이 풍부한데다 육질도 연해 회, 구이, 찌개, 젓갈용으로 안성맞춤이다.

동틀 무렵 대변항은 분주해진다. 대변항 선적 멸치잡이 배들이 조업에 나서는 시간이다. 이 즈음 멸치 떼는 부산~울산 앞바다에 출몰한다. 이른 아침 출항하면 보통 점심 무렵 만선이 되어 돌아오는데 어로 작업에 차질을 빚는 날이면 오후 서너 시를 훌쩍 넘길 때도 있다. 수온과 조류가 맞아 떨어져야 멸치 떼를 만날 수 있어 조업이 늘 일정치 않다. 때문에 어군탐지기를 켜고 이 일대 해역을 살살이 뒤지는 게 첫 일과다. 일단 멸치 떼만 찾으면 조업의 절반은 끝난 셈이다. 길이 2km의 유자망을 쳐서 멸치 떼의 이동 통로를 차단한 뒤 어군탐지기로 포획 상황을 살펴 그물을 감아올린다.

만선으로 귀향한 멸치잡이 배의 그물 타는 작업은 이색 볼거리가 된다. 대변항 부두에 정박한 채 유자망에 걸린 멸치를 털어내는 과정은 장엄하다 못해 숙연한 마음이 앞선다. 일정한 운율에 맞춰 역센 손아귀로 그물을 잡아 타는 어부들의 재빠른 손놀림에 멸치와 멸치 비늘이 허공으로 튀고 어부들의 땀방울도 함께 솟아오른다. 포구엔 어느덧 비린내 대신 땀 냄새가 가득 찬다. 이처럼 고단한 멸치털이 작업을 보고 있노라면 멸치 한 마리, 살 한 점을 결코 가볍게 대할 수 없음을 되내이게 된다.

심 속 일상탈출이 이뤄진다. 짙은 수목과 철로, 푸른 바다가 펼쳐진다. 나무 그늘 속에서는 새들의 지저귀이 청아하게 울려 퍼진다. 등에 땀이 뽀뽀하게 났 즈음 곳곳에 마련된 벤치에 앉아 다리섬을 하자면 바다 건너 불어오는 시원한 해풍이 더위는 물론 일상의 찌든 상념까지 가져 준다. 특히 해송이 밀생하는 지역으로 간간이 꼬끝을 스치는 짙은 솔향에 머릿속이 다 맑아지는 느낌이다. 전망대 구실을 하는 곳은 동해와 남해의 교차점으로 맑은 날은 일본 대마도까지 바라다 보인다.

해파랑길은 청사포를 향한다. 바다를 바라보며 운동할 수 있는 체력 단련장, 스카이 캡슐이 지척을 지난다. 여유를 부리자면 도중에 청사포 몽돌해변을 들르는 것도 괜찮다.

길은 구덕포 인근에서 계단을 내려서며 철도변 산책길 ‘그린레일 웨이’와 만나 송정해변까지 이어진다. 마침 구덕포에는 해변열차 정류장이 있어 열차를 이용해 타고 내려며 관광을 즐길 수도 있다.

송정해수욕장은 부산지역 대학생들의 모꼬지 명소이자 서핑의 성지로 통하는 곳이다. 드넓은 백사장과 얇은 수심이 압권으로 동해선 송정 전철역과 동해 고속도로가 인접하는 등 접근성도 뛰어나다.

푸르른 바다 절경과 조화 이루는 임해사찰

해동용궁사~대변항

송정해변을 빠져 나온 길은 임해사찰로 향한다. 기장읍 시랑



● 여행메모

가는 길

대중교통

- KTX를 이용하면 서울~부산 2시간 30분 소요, 당일치기 가능.
- 부산역~미포
지하철(부산역~중동역까지 23개역(서면역에서 1호선으로 갈아탄다), 부산 지하철 2호선 중동역에서~미포항까지 약 1km(도보 20분)
택시(50분소요, 2만 3000~2만 5000원)
- 부산역~기장 오가는 좌석(버스) 1003번이용(1시간 15분소요)
대변항~부산역(택시 3만 3000~5000원, 35분소요)
- 해파랑길 스탬프함 위치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64(해운대 종합관광봉사센터 내)



멸치회



멸치찌개

뭘 먹을까?

- **대변항 멸치**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말이 붙멸치에 딱 어울릴 성 싶다. 멸치는 결코 보잘 것 없는 멸어(蔑魚)가 아니다. 요즘 대변항에서 맛볼 수 있는 싱싱한 멸치는 어른 손가락보다 굵고 길다. 때문에 잔멸치만 떠올렸다가 막상 갓 잡은 대멸을 보면 멸치도 어엿한 생선임을 인정하게 된다. 붙멸치는 살이 부드럽고 기름이 오른 까닭에 가장 맛이 좋아 예로부터 진상품 중 하나였다.
- **멸치회** 유자망으로 잡은 대멸은 거친 조류를 따라 이동하는 관계로 운동량이 많다. 때문에 단련된 육질에 지방도 적당해 핏감으로 그만이다. 어른 중지 손가락 보다 더 큰 대멸은 주로 뼈만 발라내고 그냥 회로 먹거나 무쳐 먹는다. 비린내 대신 고소한 고등어의 맛도 살짝 느껴진다. 미나리와 양배추, 깻잎, 당근, 상추 등을 넣고 매콤한 초고추장에 무치는 무침도 일품이다. 기장 사람들은 멸치를 기장생미역에 싸먹어야 제 맛이라고들 한다.
- **멸치찌개** 흔히들 멸치를 국물 우려내는 데 쓰는 정도로만 알고 있다. 하지만 멸치도 어엿한 찌개감이다. 된장을 푼물에 시래기를 깔고 생멸치를 넣어 매콤하게 끓여낸 멸치찌개는 밥반찬은 물론 술안주로도 그만이다. 멸치찌개의 압권은 시래기. 찌개의 모든 맛이 한데 스며든 맛 덩어리로 최고의 밥반찬이 된다. 대변항에는 멸치 맛을 볼 수 있는 횡집들이 즐비하다. 멸치 회무침(3만~5만 원, 2~4인기준), 멸치찌개(2만~4만 원, 3~4인기준), 멸치구이 2만 원

리에 위치한 해동용궁사다. 보통 절집이 산중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름 그대로 검푸른 바닷물이 발아래서 넘실대는 동해에 접하고 있다. 서해의 감제 망해사, 남해의 여수향일암과 남해 보리암, 동해의 양양 낙산사 등과 더불어 국내 대표적 임해사찰로 꼽히는 곳이다.



2

1 대변항 전경 2 멸치조업

이 사찰은 고려말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하네'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공민왕의 왕사 나옹화상이 창건한 내력 있는 절집이다. 절 입구부터 이야기가 있는 관음성지가 푸르른 바다 절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게다가 파도소리, 은은한 독경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또 다른 분위기를 연출한다. 때문에 굳이 불자가 아니어도 청신한 분위기를 맛볼 수 있어 들를만하다.

해파랑길은 해동용궁사 경내로 들어서지 않고 도중에 해안산책길로 접어들어 국립수산물과학원 담장을 따라 해안가로 이어진다. 수산과학원을 지나면 동암항이 나선다. 해파랑길 2코스 종착지까지는 4km 남짓. 오시리아 해안 산책로 최고의 전망 지역에 자리 잡은 힐튼 호텔이 보인다. 오시리아 해안 산책로는 동암항에서 오랑대 공원을 지나는 2.6Km에 이르는 꽤 적절한 걷기길이다.

이즈음에서 서암항도 시야에 잡힌다. 다산을 기원한다는 짓병등대, 닭 벼슬 모양의 닭벚등대 등이 자리하고 있다. 포구를 빠져 나와 발길을 재촉하면 해파랑 2코스의 종점 대변항이다. ◎



● 김형우 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장(관광경영학 박사)

신문사에서 20년 동안 관광전문기자로 활동하며 전 세계 50여 개국, 전국 각지의 문화관광자원 현황과 정책을 취재했다. 지금은 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을 통해 대한민국관광 명품화 작업에 나서고 있다.

징한 세월 살아낸 한국인 감동의 K-스토리

‘속박과 가난의 세월/ 그렇게도 많은 눈물 흘렸건만/ 청춘은 너무나 짧고 아름다웠다/ 잔잔해진 눈으로 뒤돌아보는/ 청춘은 너무나 짧고 아름다웠다/ 젊은 날에는 왜 그것이 보이지 않았을까.’ - 박경리 ‘산다는 것’ 중에서

대하장편소설 <토지>의 작가 박경리 선생의 유고 시집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마로니에북스)에 실린 시 한 구절을 다시 읽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애플TV플러스가 1000억 원을 투자한 드라마 <파친코>를 보고 난 직후였다. 이 드라마는 <토지>에 비견할 만한 규모는 아니지만 ‘속박과 가난의 세월’을 살아낸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하게 만든다.

일본과 우리나라를 무대로 제작된 <파친코>는 애플TV플러스에서 공개된 직후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에서 동시에 화제가 됐다. 물론 화제의 결은 다소 차이가 있다. 한·미·일 각국이 지난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이 드라마를 보기 때문에 누군가는 아프고 누군가는 불편하다.

한국계 미국인 작가 이민진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이 드라마는 1920년대 일제강점기와 1980년대를 오가며 이야기가 진행된다. 부산과 일본 도쿄, 오사카를 주 무대로 하여 격동기를 살아낸 선자(젊은 시절 김민하 분, 노년 시절 윤여정 분)를 중심으로 한 4대에 걸친 가족사가 펼쳐진다. 한국계 미국인인 작가의 시각으로 기술된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했기에 재미 동포, 재일

동포 등 디아스포라(흩어진 사람들)의 삶에 집중한다.

파란만장한 우리 역사의 기록

짧은 시간 동안에 이토록 많은 이야기를 쌓은 민족이 지구상에 또 있을까? 그 질문에 답하듯 <파친코>는 시청자, 특히 우리나라의 시청자들에게 많은 질문을 던진다. 전 세계인 중에서 누구보다도 치열한 삶을 살아온 한국인이기에 앞으로 이런 부류의 드라마가 세계시장에서 더 큰 인기를 얻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땅에서 펼쳐진 역사를 소재로 한 대하장편소설들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짐작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박경리의 <토지>를 시작으로 빨치산의 삶을 다룬 조정래의 <태백산맥>, 조선 민초의 삶을 그린 황석영의 <장길산>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근현대의 역사 속에서 몰락해가는 양반의 이야기를 다룬 최명희의 <혼불>이나 조선의 도적을 그린 홍명희의 <임꺽정> 등도 파란만장한 우리 역사의 기록이다. 조선 보부상들의 기록인 김주영의 <객주>도 있다.



애플TV플러스 드라마 <파친코> | 애플TV플러스



영화 <미나리> | 판씨네마㈜



● 오광수 대중문화평론가(시인)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하고 오랫동안 문화 분야에서 기자로 일했다. 저서로는 시집 <이제 와서 사랑을 말하는 건 미친 짓이야>, 에세이집 <낭만광대 전성시대> 등이 있다. 현재는 문화 현장에서 일하면서 평론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미국으로 건너가면 그곳에도 녹록지 않은 한국인의 삶이 있다. 구한말 하와이의 사탕수수밭으로 이주해 노예처럼 일하던 우리나라 이민자들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사진 한 장만으로 미국으로 시집간 우리나라 여성들의 기막힌 사연도 있다. 미국에 이민 간 이민자의 삶을 소재로 한 영화 <미나리>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주목받으며 여우조연상을 받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다.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로 파견됐다가 그곳에서 한 평생을 보낸 재독 동포도 있다. 또 카레이스키로 불리는 고려인의 삶도 있고 조선족으로 불리는 재중 동포의 삶도 있다. 이웃 나라 일본에서 펼쳐졌던 조총련과 민단의 치열한 이념 싸움은 또 어떤가? 강제징집을 당해 태평양 한가운데서 죽어야 했던 청년들도 있었고 ‘일본군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희생된 꽃다운 조선의 여성들도 있었다. 이 작은 나라의 백성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전 세계 어디서든 잡초처럼 근성을 갖고 살아온 것이다.

<파친코>는 시청자, 특히 우리나라의 시청자에게 많은 질문을 던진다. 전 세계인 중에서 누구보다도 치열한 삶을 살아온 한국인이기에 앞으로도 이런 부류의 드라마가 세계시장에서 더 큰 인기를 얻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인간애를 바탕으로 한 진한 감동

<파친코>의 주인공 선자의 아버지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던 사람이었지만 가족에 대한 사랑은 그 누구보다 뜨거웠다. 아버지는 선자에게 세상을 떠나기 전 ‘부모 될 자격’에 대해 말한다.

“옛날에는 내 팔자가 왜 이리 모진가 할 때가 있었지(중략). ...그라고 보니까 팔자랑 상관없는 거라. 내가 니 부모 될 자격을 얻어야 되는 거더라. 선자야, 아버지가 강해져 가꼬 세상 더러분 것들 싹 다 쫓아버렸으니까. 아인나 니도 금세 강해질 거다. 나중에는 니 얼라들도 생기겠지. 그때 되면 니도 그럴 자격이 돼야 된다. 선자 니는 할 수 있다. 나는 니를 믿는다.”

폐질환으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선자는 삶의 격랑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꾹꾹하게 헤쳐나간다. 드라마 속 한국인들은 가난하고 배우지는 못했지만 사람 간의 정이 있으며 없다고 차별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간다. 그리고 어디에 살든 조국에 대한 자긍심을 잃지 않으며 누구에게도 머리 숙이지 않고 자존감을 지킬 줄 안다.

엄밀하게 따지면 <파친코>는 K-드라마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 그렇지만 K-스토리임은 분명하다. 앞으로도 글로벌시장에서 한국과 한국인의 삶을 다룬 드라마나 영화가 더 각광받을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인간애를 바탕으로 한 진한 감동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탄탄한 이야기를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 수 있는 탁월한 제작진과 배우가 이 땅에는 차고 넘친다. ●

스승의 은혜

스승의 날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익숙한 이 노래가 불리는 날이 또다시 돌아옵니다. 누구나 ‘스승의 은혜’ 노래를 들으면 떠오르는 인생의 스승이 있을 것입니다. 5월 15일은 그분들의 은혜에 감사하는 스승의 날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모두가 일상회복의 문으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학교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이들도 선생님도 그동안 참아온 반가움과 설렘에 마음이 들뜨긴 마찬가지인데요.

스승은 선생의 순우리말인데요. 하지만 선생과 스승을 비슷한 말이라고 단정하기엔 느낌의 차이가 큼니다. 평소엔 스승보다 선생이란 말을 더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선생과 스승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선생’은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을, ‘스승’은 자기를 가르쳐 인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사, 교수, 강사 등 직업을 가리키거나 상대를 높이는 존칭이 선생이라면 스승은 학문, 지식, 기술을 가르치는 직업인이라기보다 인간의 도리나 세상 이치를 가르치고 바르게 이끌어주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모든 스승은 선생이지만 모든 선생이 스승으로 존경받는 것은 아닌데요.

스승이란 말의 어원은 무당을 가리키던 신라시대 ‘차차웅(次次雄)’이란 말이 나중에 존장자나 왕을 뜻하게 됐는데, 발음이 ‘사사웅→스승’으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렀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만큼

스승이란 말에는 존경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스승의 날 유래

그렇다면 스승의 날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한 국민속대백과사전에 따르면 스승의 날은 1958년 충청남도 강경여자고등학교 청소년적십자 단원들이 세계 적십자의 날을 맞아 병중에 있거나 퇴직한 교사들을 위문하기 위해 찾아간 데서 유래했습니다. 이후 1963년 제12차 청소년적십자사 중앙학생협의회에서는 5월 26일을 ‘은사의 날’로 정하고 스승의 은혜를 가슴에 되새기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다음 해인 1964년에는 ‘은사의 날’을 ‘스승의 날’로 바꾸고 1965년에는 각급 학교 및 교직원단체가 주관이 돼 스승의 날을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로 변경했습니다. 이후 1973년에는 정부의 서정쇄신(庶政刷新, 여러 방면에서 정치 폐단을 고쳐 새롭게 함) 방침에 따라 ‘스승의 날’이 폐지됐다. 스승을 공경하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1982년 ‘각종기념일에관한규정’에 스승의 날이 포함되면서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승의 날과 세종대왕

스승의 날의 유래를 청소년적십자의 활동에서 찾을 수 있다면 그 의미는 ‘세종대왕 탄신일’과 관련이 깊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한글을 창제한 세



선생님이 살아나야 학교가 살아나고, 학교가 살아나야 아이들이 살아나고,
아이들이 살아나야 나라가 살아납니다.

종대왕이야말로 참된 스승이라는 의미에서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했기 때문인데요, 한글의 원래 이름인 ‘훈민정음(訓民正音)’ 역시 ‘백성을 가르치는 올바른 소리’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조선 시대 이전까지 우리 조상들은 중국의 한자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자가 너무 어렵고 교육의 기회 역시 균등하게 주어지지 않은 탓에 일반 백성들은 한자를 읽거나 쓸 줄 모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로 인해 백성들은 많은 불편을 겪거나 때로는 오해를 받아 억울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글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훈민정음’을 창제하게 됩니다. 특히 세종대왕은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 싶어도 그 뜻을 펴지 못한다. 내가 이것을 딱하게 여겨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들었으니 사람들이 쉽게 익혀서

날마다 편리하게 사용하기를 바란다”라고 훈민정음 서문에 기록했는데요, 만약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지 않았다면 우리의 언어생활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 텐데요, 이렇게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한글을 창제했다는 것만으로도 세종대왕은 우리 모두의 진정한 스승이 아닐까 싶습니다.

학창시절 우렁찬 목소리로 반 친구들과 함께 “선생님 감사합니다”를 외친 경험 다들 한번은 있죠? 때마침 학교가 일상회복을 시작한 5월입니다. 아무리 스승의 날의 의미가 퇴색했다고 해도 선생님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기에 아이들은 여전히 미래를 꿈꿀 수 있는데요, 가르침을 주신 스승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는 사회가 됐으면 합니다. 선생님이 살아나야 학교가 살아나고, 학교가 살아나야 아이들이 살아나고, 아이들이 살아나야 나라가 살아납니다. ㉠

백미현 기자

직선으로 그린 마음의 풍경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선은 모두 곡선이다. 그 속에서 직선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수평선이나 지평선은 직선이 아니냐고 반문한다면? 대답은 분명하다. 그것 역시 직선이 아니다.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이다. 수평선이나 지평선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멀리서 볼 때만 인식된다. '허구의 풍경'이다.

반면 직선은 철저히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선이다. 두 점 사이를 잇는 가장 짧은 선, 조금이라도 휘어지거나 굽어지면 직선이 아니다. 이때 '거리'와 '속력'이라는 개념을 떠올리게 된다. 직선은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짧고' 가장 '빠른' 장치다. 좋은 예가 기차길, 즉 철도다. 기차는 서구 근대의 서막을 연 교통수단이다. 철로는 직선을 추구한다. 곡선을 좋아하지 않는다. 산을 만나면 에둘러 돌아가지 않는다. 터널을 뚫어 산맥을 관통한다. 강을 만나면 다리를 놓아 건너간다. 이처럼 기차길은 곡선으로 이루어진

자연 지형을 직선으로 바꿔버렸다. 이때부터 자연처럼 구불구불했던 지도 위에 직선이 그어지기 시작했다. 근대적 시·공간의 개념이 탄생하는 순간이다. 서구의 근대화 과정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인간중심주의 프로젝트였다.

같은 맥락에서 20세기 서구 모더니즘 미술은 추상을 지향하는 역사다. 자연에 대한 1차원적인 모방, 현실에 대한 객관적 묘사를 거부하는 도전이다. 대상의 닮음을 재현하는 것을 초월한다. 비가시적 영역, 즉 마음의 눈으로 포착한 심상을 추상 이미지로 재구현하는 프로젝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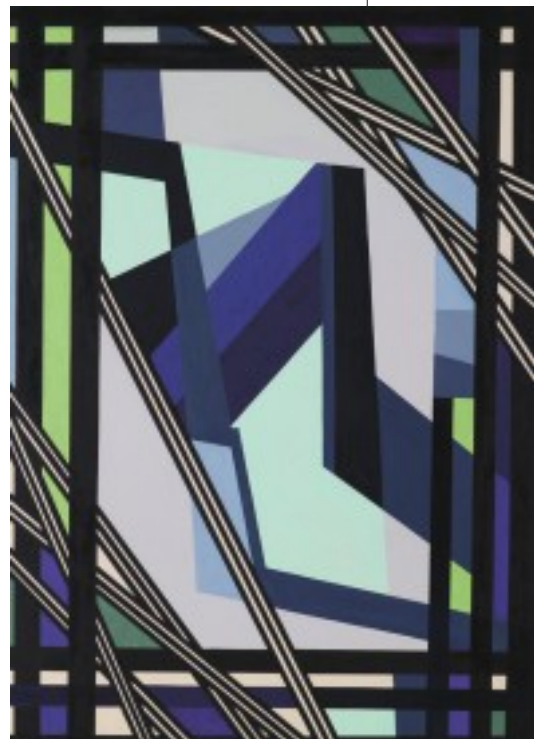
장식성을 겸비한 건축적 회화

직선이 많아서 인공적으로 보인다. 그래서 건축적이고 도시적인 느낌이다. 이주연 작품에서 받는 첫인상이다. 덧붙이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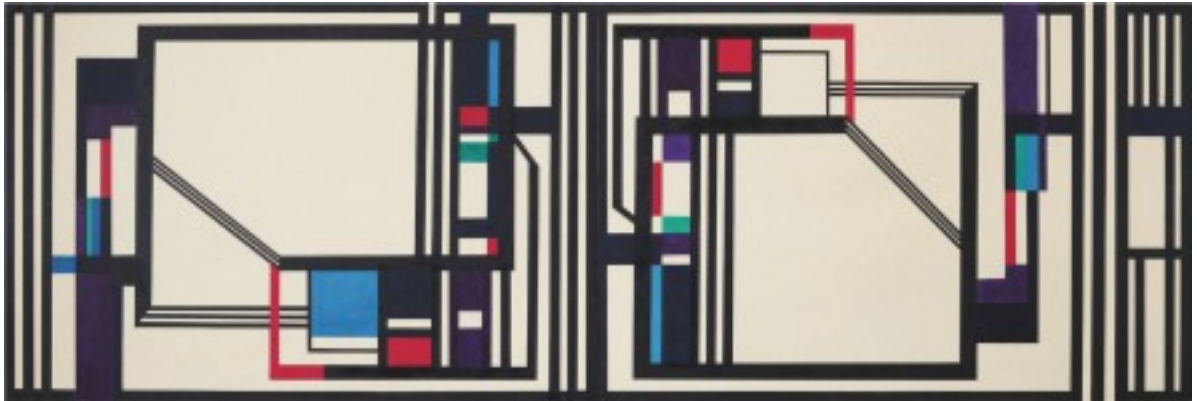
1



2



3



1 이주연, 'Mindscape-11', 장치 위에 아크릴 채색, 146×206cm, 2022 2 이주연, 'Mindscape-18', 장치 위에 아크릴 채색, 122×86cm, 2022
3 이주연, 'Mindscape33-34', 장치 위에 아크릴 채색, 130×380cm, 2022

칸딘스키 같은 '뜨거운 추상' 또는 추상표현주의 회화를 대표하는 잭슨 폴록의 '액션 페인팅'과는 거리가 멀다. 차라리 몬드리안의 '차가운 추상', 즉 그래픽 요소가 두드러지는 것에 가깝다. 프레임이 가로지르는 직선의 움직임은 과감하다. 직선으로 분할된 화면은 해체되며 사각 캔버스라는 정형성에서도 크게 벗어난다. 작가는 작업 노트에서 이렇게 밝혔다.

“일상적 풍경과 소소한 하루가 스며든 물리적 시간을 기하추상 구조의 작업 공간 속에서 어떤 식으로 형상화할 수 있는지를 탐문한다.”

이런 문장을 통해 작가가 추구하는 추상회화에 대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직선으로 자연의 풍경을 묘사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니 어쩌면 애초부터 자연과 풍경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일에 관심이 없을지도 모른다. 이어서 그는 “...다양한 재료적 특성이 적극적으로 부각되도록 기존 화면의 틀을 더욱 구조화하고 확장시켰다. 그리고 근원적인 직선의 조형적 구조와 무채색적인 정제된 컬러가 이어지는 공간에 도시적이고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다층적 시각요소를 혼합하여 공간의 단면을 풍부하게 하고자 했다”고 말한다.

이 대목에서도 자연에 대한 단순한 묘사가 목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도시공간에서 체험한 미의식을 순수추상 조형 작업으로 구현하겠다는 의도를 유추할 수 있다.

작품의 근원에 자리한 대도시의 풍경

이화여대에서 동양화를 전공한 이주연은 1993년 대학원을 졸업하고 본격적인 작가 활동을 앞둔 시기에 고국을 떠나 미국 시

카고로 갔다. 10여 년 동안 그곳에서 지냈던 경험이 이후 작업 세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작품의 특성을 직선에서 찾을 수 있다면 그 근원에 대도시의 풍경이 큰 영향을 주었다.

미국의 여느 대도시가 그렇듯 시카고 중심지는 수직으로 곧추선 고층 빌딩이 빼곡하다. 도시의 하늘지붕선(스카이라인)은 특유의 상승감과 기하학적 실루엣으로 드러난다. 수없이 많은 직선이 교차하며 복잡한 기하학적 풍경을 만들어낸다. 도시는 부분과 전체의 구분이 모호하며 수직선과 수평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공간이다. 이런 감각이 그림에 고스란히 투영돼 있다.

결론적으로 이주연의 추상회화는 도시의 감각을 표현한 '심상의 풍경(Mind-scape)'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조각보나 한옥 문창살 같은 우리 전통문화의 이미지를 패턴화한 구성처럼 보이기도 한다. 작가 역시 작품 속에 한국적 정서가 일부분 은유적으로 담겨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자신의 작품을 한국적이라고만 규정짓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전통은 한국성을 함의적으로 풀어낼 최소한의 근거가 될 순 있다. 하지만 한국성이란 주제만을 고집한다면 전통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



● 이준희 건국대 현대미술학과 겸임교수

미술대학을 졸업했지만 창작에서 전향해 몇 년간 큐레이터로 일했고, 미술 전문지 <월간미술> 기자로 입사해 편집장까지 맡아 18년 8개월 동안 근무했다. '저널리스트'로 불리는 것보다 여전히 아티스트에 가까운 '미술인'으로 불리기 원한다.

공감
리뷰



652호

‘마음은 나누고 우울은 덜어내고’ 기사가 눈에 띕니다. 시·도 정신건강 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마음 안심버스에서 심리 상담을 진행한다는 내용입니다. 마음 안심버스가 국민을 찾아가 코로나19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치유하면 국민에게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아울러 시·도 정신건강 복지센터에서 다양한 방법의 정신적 치료를 하고 있다는 점이 국민에게 신뢰감을 줍니다.

서범석 서울 강동구 고덕로



653호

〈특별한 가을〉이라는 단어를 보았을 때는 전혀 상상할 수 없던 내용이 글을 누른 순간 가볍지 않게 다가왔다. 깊이 생각해 보면 다른 모습과 언어를 사용할 뿐 그들의 생명은 결코 우리가 재단할 수 없는 부분이다. 반려견을 만나러 가는 아이의 시점이 아닌 반려견의 시점에서 책이 쓰였다는 점에서 작가가 전달하고자 한 바가 더 크게 다가왔다. 모두가 같은 생명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살아간다면 조금은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서로를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날이 오기를, 가을이의 행복을 조심스레 바라본다.

채윤원 서울 관악구 봉천동

사진
공감



창살 없는 감옥이나 다름없었던 코로나19의 거리두기가 풀려나가고 있습니다.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에 맞추어 오랜만에 바닷바람 쐬러 갔지요, 마스크 없이 직접 마주하는 바닷바람이 이렇게 고마울 수 있다니... 세상의 모든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장효선 서울 은평구 연서로

디지털 <공감>
이곳에서
만나세요!

공감 gonggam.korea.kr

f www.facebook.com/wegonggam

k content.v.kakao.com/3094

y www.youtube.com/user/weeklygonggam

blog blog.naver.com/mcst_pr

정책브리핑 누리집 www.korea.kr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공감 리뷰’와 ‘사진 공감’은 독자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지는 공간입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5월 25일까지 이메일(gonggam@hani.co.kr)로 보내주세요. 다음 호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선정된 분에게 기프트콘(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공유와 댓글을 통해 많이 참여해주세요.

지방선거에서는 몇 개의 선거가 치러지나요?

총 7개의 선거가 실시되며,
7장의 투표용지가 교부됩니다.

- ① 광역단체장(시·도지사)선거, ② 교육감선거
- ③ 기초단체장(자치구·시·군의 장)선거,
- ④ 지역구광역의원선거, ⑤ 지역구기초의원선거,
- ⑥ 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
- ⑦ 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가 실시됩니다.

* 단, 세종시는 4개, 제주도는 5개 선거가 치러짐

*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실시되는 지역(7곳):
대구 수성구, 인천 계양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
강원 영주시, 충남 보령시, 전북 군산시,
전남 함평시, 광주 서구, 제주 서주시

투표시간은 어떻게 되며 투표소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선거일	사전투표일
· 6. 3(수) 오전 6시 ~ 오후 6시	· 5. 27(금) ~ 5. 28(토) 오전 6시 ~ 오후 6시
· 주소지 관할 지방법 투표소 에서 가능	·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내 에서 가능
· 중앙선거위 홈페이지 또는 내 투표소 찾기 검색	· 중앙선거위 홈페이지 등 확인

* 코로나19 확산 유감자의 투표시간은 방역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후보 중앙선거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예정입니다.

선거일 투표와 사전투표 절차가 어떻게 다른가요?



사전투표

- ① 관내 관외선거인으로 나뉘고, 7장의 투표용지를 한 번에 받음
 - * 세종시 4장, 제주도 5장
 - * 국회의원 보궐선거 실시 지역은 투표용지를 한 장 더 받음
- ② (관내 선거인) 투표용지에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
- ③ (관외 선거인)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투표지를 모두 넣고** 봉합하여 투표함에 투입

선거일 투표와 사전투표 절차가 어떻게 다른가요?

선거일 투표 두 번에 나누어 투표!

- ① 1차로 투표용지 3장을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
 - * 대상 선거: 교육감, 시·도지사, 구청장·시장·군수
 - * 국회의원 보궐선거 실시 지역은 투표용지를 한 장 더 받음
- ② 2차로 투표용지 4장을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
 - * 대상 선거: 지역구시·도의원, 지역구구·시·군의원,
비례대표시·도의원, 비례대표구·시·군의원

* 세종 4장(한 번에 투표), 제주 5장(두 번에 나누어 투표)

지역구기초의원선거 후보자기호에는 왜 “가”, “나”표시가 있나요?

지역구기초의원선거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어,
정당은 선거구별 선출 인원(2~4명) 내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 예를들면 2명을 선출하는 경우,
기초 1번 정당의 추천 후보자는 ‘1-가, 1-나’로 표시합니다.



유권자는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투표해야 하며,
두 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투표하면 무효가 됩니다.

* 0번 선거에서는 전국 11개 국회의원선거구내
지역구기초의원 선거구에서
3~5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시행 실시합니다.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은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 “**정책·공약마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olicy.nec.go.kr)

정책공약	대상	공개일정
경로 10대 정책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5. 9.
5대분야	시·도지사 및 교육감, 구·시·군의 장 후보자	5. 19.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내 모든 후보자	일찍이
선거공보	선거구내 모든 후보자	5. 24.

* 선거공보는 5월 22일까지 발송합니다.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하세요!

- 대상선거: 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구·시·군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 선거
- 방송일정: 방송시간 및 방송사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후보자토론회 **다시보기** debates.go.kr

YouTube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국유단 누리집 [홈페이지]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MND Agency for MIA Recovery & Identification

6·25 전사자의 유가족을 찾습니다

유가족 유전자 시료 채취

채취대상

전사자 기준 친·외가 8촌 이내 유가족

참여방법

가까운 보건소 및 보건지소, 군병원, 예비군 동대, 보훈병원,
전국적십자병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서울현충원) 방문
또는 전화신청 시 유전자시료채취 키트발송

* 거동이 불편하신분 방문 채취 가능

유가족 신원 확인 시 **1000만원** 포상금

홍보대사 송해

송해

[오!6·25]

1577-5625